수입차 전문 수리 불리카 때 박형수 M. 010-8998-1048 H. 063-244-104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943-9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F. 063-244-1043

조기문법무사 해솔학행정사 법무사/행정사 조 기 문 (오)54859 전북특별지치도 전후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8중 805호(만성등, 오케이터워기) Mobile 010-2053-8741 Tel 063-223-8741

2025년 10월 28일(화) 제 3195호

전북 올림픽 유치 '암흑'…졸속 준비 논란 확산

사전타당성조사3개월연장논란 중요시설새만금신공항위기겹쳐 조국당전북도당"현실직시해야" "도준비도해명도부실"성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27일 논평 을 통해 "지난 23일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 타 당성 조사 용역 기간을 돌연 연장했다 는 소식은, 야심 차게 출발했던 전북의 올림픽 유치에 제동이 걸렸음을 보여주 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지난 3월 압도적인 표차로 국내 후보지에 선정되며 '균형 발전'과 '지역 연대'라는 새로운 올림픽 패러다임을 내세워 수도권의 독점을 깼다는 점에서 도민의 꿈을 부풀게 했던 전북도의 행 보가 7개월 만에 현실의 벽 앞에 부딪 힌 것이다"며 "게다가 올림픽 성공 개최 의 필수 사회 기반 시설로 여겨졌던 새 만금 신공항 건설마저 법원 판결로 좌 초 위기에 놓이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고 밝혔

또 "당초 9월 완료될 예정이었던 사전 타당성 조사가 12월 말로 3달이나 미뤄 진 것은, 올림픽 유치 계획의 준비 과정 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 여준다"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 감대를 확산하기 위함이라는 전북도의 해명은 결국 애초부터 완성도 높은 계 획이 없었음을 자인하는 셈이다"고 덧 붙였다.

조국당은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행 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의 기본 계획을 취소판결로 현재 소송 중인 전 북도의 읍소 해명이 너무도 허술하다 는 점이다"며 "법원은 조류 충돌 위험성 을 축소·왜곡하고 생태계 파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다고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림픽 유 치의 중요한 기반시설인 신공항 건설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국제적인 항공 접 근성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 기하고 있다는 것.

도당은 "이는 잼버리 사태와 신공항 건설 논란을 겪는 상황에서 올림픽 개 최가 미래의 발전을 위한 경제적 성공 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해외 사례와도

연동되며 큰 경고음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전제한 뒤 "2004 아테네 올림픽 이후 그 리스는 과도한 투자로 인해 국가 재정 적자 폭이 크게 늘어 경제 위기를 겪었 다는 비판을 받았고 2016 리우데자네이 루 올림픽 역시 남미 최초의 올림픽 개 최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역사 상 최악의 경제 침체를 겪었다"고 우려

조국당은 "2020 도쿄 올림픽은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큰 비용을 감수했고, 약 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림픽 이후에도 현재까지 경기장 운영 에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출하고 있 다."며 2036 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조국당은 "전북도의 올림 픽 유치가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 해서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을 일이 아니 다"며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가 의회와 정치권, 도민들과 투명하고 진정 성 있는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The JeonBuk Times

/장정철 기자



진안 고원화목원 '가을꽃 힐링정원'

전북 산림환경연구원이 운영 중인 고원화목원은 단풍철을 맞아 국화, 페튜니아 등 6종 5,200본과 나무 3종 156본 으로 '가을꽃 힐링정원'을 조성했다. 방문객은 11월 중순까지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다.

이명연 도의원 "민생지원금 형평·지속가능성 따져야"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 우려 "재원미련근거·검토절차명확히"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 언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 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 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 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중이 다"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 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 들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 북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 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을 위한 세 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재정 충당 방안의 명확화다. "지방세 수입 확충, 불용예산 절감, 보



이명연 도의원

련해야 하며, '어 디서 돈이 나오 는가'에 대한 명 확한 설명 없이 주민 세금을 집

조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 조했다.

둘째, 사전 검토 절차 강화다. "지자 체는 민생지원금 지급 전 재정 영향과 경제적 효과, 주민 수혜 범위 등을 충분 히 검토해야 하며, 도의회 의견청취나 동의 절차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라 고 제안했다.

셋째,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다. "지원 대상, 규모, 시기 등을 주민이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 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 보되지 않은 단기적 현금성 지원은 결 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 있 다"라며, "형평성과 책임있는 재정운용 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민생정책 체계 확립"을 거듭 촉구했다.

/장정철 기자

장연국 도의원 '보행안전도우미' 제도화 추진

임시회서 운영 조례 대표발의 공사장 보행권 보장 기반 마련

전북도의회 장연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 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이 27일 열린 제 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 공사에 서 도민의 보행권 보장과 안전사고 예 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때,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



장연국 도의원

행할 수 있는 보 행환경을 조성하 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됐다. 조례는 도지사

민이 안심하고 통

의 책무를 명시 해 보도 점용공사 시 도민의 보행권

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 행하도록 하고, 전북자치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스관, 전력 및 통신공사 등 보 도를 점용하는 각종 공사에도 시·군과 시행주체에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

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공사현장을 통행 하는 보행자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 고, 안전시설을 점검·보수 요청하며, 교 통약자 통행을 동반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하며, 보행안내에 적합한 복장과 장비 를 갖추어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연국 의원은 "보행안전은 도민의 기본권이자 가장 일상적인 안전"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 으로 공사 현장에서도 도민이 안심하 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 대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급증…대책 마련해야"

박희승 "건강악화 중도포기 높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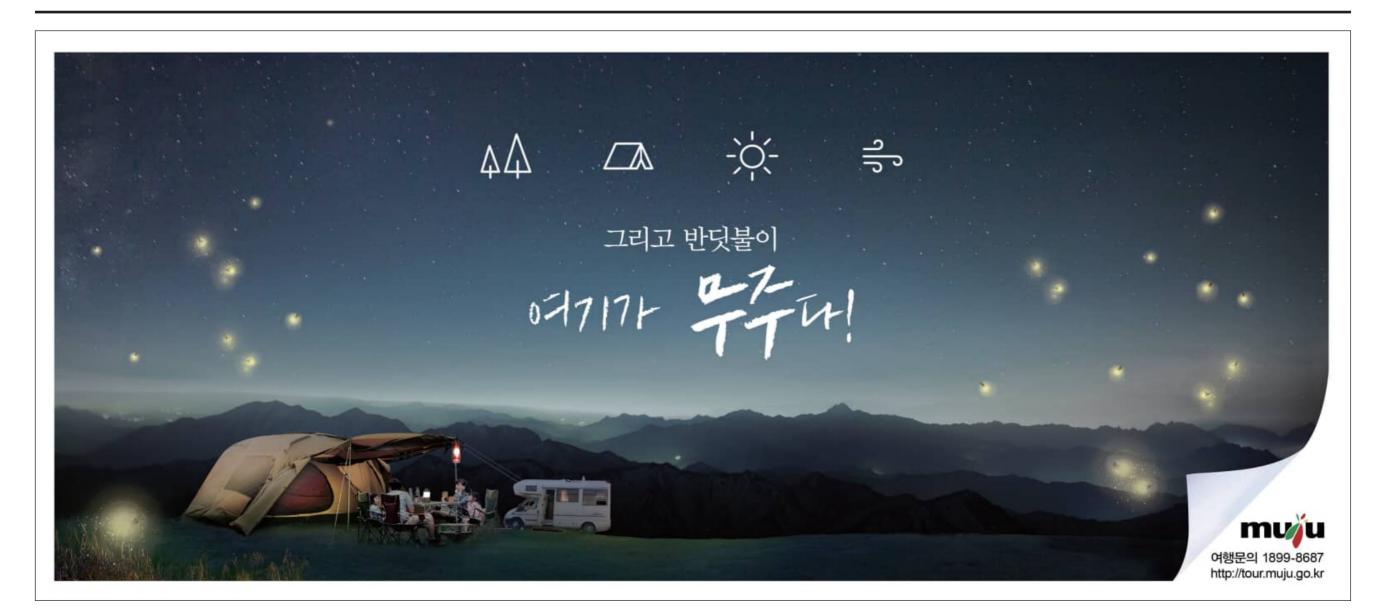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노인일자리 사업의 예산이 늘어나면 서 상대적으로 안전사고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안전 대책도 함께 추진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보 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한 결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2004년 2.5 만 명, 212억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올 해 109.8만 명, 2조 1,847억 원 규모로 확대됐고,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7,6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고유형별로는 골절이 10,237 건(58.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 /장정철 기자 상 2,172건(12,3%), 염좌 910건(5,2%), 찰과상 909건(5.2%), 인대손상 698 건(4.0%) 등이었다. 특히 안전사고는 2020년 2,048건에서 2024년 4,036건으 로 약 2배가 급증했으며, 사망도 124건 발생했다.

중도 포기율도 높다. 공익활동형은 지난해 중도 포기율이 12.1%에 달했 다. 중도 포기한 9만 2,340명 중 48,019 명(52.0%)은 건강 악화가 원인이었으 며, 사망도 2,527명(2.7%)에 달했다. 역 량활용형은 9.6%, 공동체 사업단형은 17.5%로 중도 포기율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건강 악화가 중도 포기 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안전사고와 중도 포기율 관리 및 담당자 배치기준과 선발기준 의 합리적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道, 2026년 농생명산업 예비지구 정읍·김제 최종 선정

정읍약용치유융복합산업지구 김제 콩愛뜰 논콩산업 거점지구 지역 특화산업 기반 경쟁력 강화

전북도는 24일 개최된 농생명산업지 구 심의위원회에서 ▲ 정읍 약용치유 융복합산업지구, ▲ 김제 '콩愛뜰' 논콩 산업 거점지구, 총 2곳을 2026년 농생명 산업 예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 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1차 평가에서 제기된 의견을 각 지구별 계획에 반영 한 후, 2차 발표평가와 질의응답을 거쳐 사업 타당성, 실행 가능성, 지역 발전 기 여도 등을 종합 심사했다. 최종 선정 기 준인 70점 이상을 획득한 2개 지구가 예 비지구로 확정됐다.

정읍 약용치유 융복합산업지구는 농 모델을 내실 있게 마련했다.

업생산연계형 지구로, 지역 특화 약용 지원을 활용한 치유산업 융복합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지역 발전 연계성에 있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 '콩愛뜰' 논콩산업 거점지구는 농업생산연계형 지구로 기존 1차 산업 인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2차·3차 산 업(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으로의 확 장을 통해 산업 경쟁력과 사업 추진 역 량을 크게 강화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 가됐다.

특히 올해는 신규 지구의 체계성과 실 효성을 높이기 위해 3월부터 8월까지 식품, 경제, 유통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 이 참여하는 단계별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입지 여건, 산업 연계성, 경제 성, 전략 및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을 면밀 히 분석해 예비지구 선정에 앞서 실행



전북도는 24일 개최된 농생명산업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총 2곳을 2026년 농생명산업 예 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전북도>

이번에 선정된 2개 지구는 세부실행 계획 보완을 통해 실행력을 강화하고 지구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협의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농생명산업

/장정철 기자

전북도, 전국 최초 온비드 압류물품 전자공매 '성과'

온비드활용해 288건 전량 낙찰 체납액 2억7천만원 징수 실적 공정·투명 지방세 행정 '새 모델'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한국자산관리 공사(온비드) 이용기관 페이지를 활용 한 시군 합동 압류물품 온라인 전자공 매를 실시한 결과, 총 288건이 전량 낙 찰되어 2억7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 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매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지방 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가방, 귀금속, 골프채 등 288점을 공개 매각했 다.

낙찰대금은 1억2천7백만 원에 달하 며, 공매 이후 체납자 9명이 자진 납부 한 1억5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7천7백 만 원이 체납액으로 충당됐다.

거해 온비드 플랫폼을 공식 활용한 전 국 최초의 합동 공매 사례로, 누구나 참 운영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

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방식으로 진행 됐다. 공매 현장에는 약 2천 명이 방문 해 실물을 직접 확인했으며, 응찰 건수 도 2천여 건에 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입찰 참가자는 보증금(입찰금의 10%) 을 예치해야 했으며, 이를 통해 허위 입 찰이나 낙찰 포기 등으로 인한 유찰 사 례를 최소화했다. 실제로 낙찰 포기로 귀속된 보증금 110만 원 역시 체납세금 에 충당됐다.

주요 낙찰 물품으로는 감정가 500만 원의 IWC 시계가 735만 원에, 16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이 최고가로 각각 낙찰되는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담당기관과 협업해 제도 미비점을 보완 하고, 타 지자체도 동일한 절차로 공매 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 이번 전자공매는 지방세징수법에 근 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낮은 수 수료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공매를 상시



전북도는 전국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 활용 시군 합동 압류물품 온라인 전자공 전북도는 이번 공매 과정에서 온비드 매를 실시한 결과 2억7천7백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전북도>

가를 받고 있다.

도의 공매는 전국 최초로 온비드 이용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합법적 전자공매 사례로, 지방세 행정의 새 기준을 세웠

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 극 개발하고, 성실 납세 문화 확산과 공 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

/장정철 기자

전북, 벼 수발아 농업재해 인정…농가 지원 길 열려

익산·김제·부안 3,360ha 피해 도, 농식품부 재해인정 건의 31일까지 접수…기간 연장 계획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받아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의 길이 열렸다고 27일 다. 밝혔다.

주산지를 중심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논콩과 벼 수발

아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작물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속한 대 책 마련과 농업재해 인정을 건의했다.

벼 수발아는 익산·김제·부안 등지에 전북특별자치도는 벼 수발아 피해가 서 3,360ha(잠정) 규모로 발생했으며, 건의 결과 이날 농업재해로 인정받았

도는 올해 8월 말부터 10월까지 계속 을 신고하면 되고, 시군에서는 수발아 된 잦은 비로 농작물 피해가 예상되자 피해벼 수매 물량을 확인해 농가별 복 구비를 산정할 예정이다.

앞서 가을배추 및 논콩 피해도 지난

23일 농업재해로 인정된 바 있다. 현장 등의 피해신고를 받고 있으나, 누락되 조사에서 가을배추는 익산·정읍·고창 등에서 322ha(잠정) 규모로 뿌리내림 부진과 무름병이 발생했고, 논콩은 익 산·정읍·김제·부안 등 5,420ha(잠정)에 달하는 잎과 줄기 마름, 뿌리썩음 증상 을 확인했다.

피해농가는 시군 읍면동에 피해사실 농식품부에 지원을 적극 요청해 가을배 추와 논콩은 전북·경북·충북 3개 시도 에 한해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피해 농가들이 복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현재 10월 31일까지 벼 수발아

는 농가가 없도록 접수 기간을 추가 연 장할 방침이다. 피해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한 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기후변화로 이상기후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전북도는 이 같은 피해 조사를 토대로 도 농민들의 어려움을 최우선으로 살피 고, 신속한 대응과 중앙정부에 대한 적 극적인 건의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회복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윤준병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 발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합 농어촌 맞춤 의료체계 구축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 일 국정감사 입법대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 공을 위해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향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5년 3,626명이었던 공중 보건의사는 작년 2,863명으로 10년 간 21%가 감소했다, 특히 의과의 경 우 감소율은 전체 감소율의 두 배가 넘는 46%(2015년 2,239명, 2024명 1,209명)가 감소했다"며 이같은 법 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2024년 의과 공보의의 보건 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소 및 보건지소 배치 현황을 살펴보 면, 시·군·구마다 1개씩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충원율이 93.5%에 이르지만, 읍·면마다 1개씩 설치되 는 보건지소에는 충원율이 54.4%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의료취약지 에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보 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 가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또한 의료 인프라가 낙후된 농어촌 지역 에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따 라 기존 설치된 지역의료기관들의 이용 인원 역시 날로 줄어드는 추세

이에 농어촌지역에서는 보건진료 소가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을 하거 나 통폐합할 수 있는 새로운 보건의 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하다는 지 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2024년 기준 시·군·구마다 1 효율적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개씩 설치되는 보건소의 경우 충원



윤준병 의원

율이 93.5% 에 이르지 만, 읍·면마 다 1개씩 설 치되는 보 건지소에는 충원율이 54.4%에 그 치는 등 상

대적으로 의 료취약지에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보건지소의 공보의 배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 중보건의사 미배치 보건지소가 증 가하는 등 농어촌지역의 보건의료

상황이 심각함에도 현행 법은 보 건지소 간의 통폐합, 보건진료소 간 또는 보건지소 간의 통폐합 등 업무 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 어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재편 하는 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보건의료 취약지 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이로 인해 농어촌 산간벽지의 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여러 개의 보건 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또는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법」에 따 라 설치된 보건지소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 윤준병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주 민들에게 있어 보건진료소는 가장 필요한 의료기관이지만, 이를 운영 하기 위한 실질적 인력과 지원은 갈 수록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건소 와 보건지소의 통합운영은 자원의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도·도의회, '청렴전북' 캠페인 공동 개최

부패행위 과녁 사격 퍼포먼스 "청렴 의식 확산 도민 신뢰 제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는 지난 7월 '청렴전북 구현 협약' 을 체결한 데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공 직사회 구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실 천하기 위해 27일 전북도청 직원식당 로비에서 '청렴전북 구현 캠페인'을 공 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 사,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이명연· 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의회운영위원 장, 최형열 기획행정위원장, 강동화 윤 리특별위원장, 김진철 감사위원장 등 양 기관 주요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청렴 실천 의지를 함께 다졌다.

참석자들은 '갑질', '특혜' 등 부패행



위 문구가 적힌 과녁을 사격하는 퍼포 먼스에 참여해 부패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승우 의장은 "청렴 정조준 공동 캠 페인'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 의 식이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의회 역시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청렴을 핵심가치로 삼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에코시티 DK몰 사태 피해 최소화 '총력'

피해 소상공인시민 불편 최소화 임대주한전이마트상인協구성

전주시가 송천동 에코시티 DK몰 단전 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불편 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한전·이마 트·상인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 다.

시는 단전이 예고된 에코시티 DK몰의 영업 재개 등 사태 해결을 위해 관련 협 의체를 구성하는 등 해결 방안 모색에 집 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에코시티 DK몰은 소유자의 경영난으 로 인해 3개월 동안 전기요금이 체납되 는 등 공과금이 납부되지 않아 지난 21 일 한전으로부터 단전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이마트 에코시티점 등 20여 개 입점 업체들은 이날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 자들을 포함한 대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에 시는 지난 21일 DK몰 단전 현장 을 방문해 현장 점포 직원들을 면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영업 재개 등 해 다.

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국전력 측과 단 전 유예를 협의하고 소유자(관리인)의 전기요금 납부 방안을 논의하는 등 영업 정상화 방안 및 사태 수습을 위한 현장 대응에 노력해 왔다.

시는 이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관계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시 일자리센터 연 성 등 방안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피 계 일자리 지원 및 신용보증재단 연계 대 출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 및 법률 지원 등 을 검토하는 한편, 영업 현황 및 휴·폐점, 철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나갈 계

전주시 관계자는 "사태 발생에 따른 피 해를 줄이고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현장을 찾아나서겠다"면서 "협의체 구 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수출 상담 주간, 500만불 규모 수출·투자 '성과'

수출상담회 · 바이어 매칭 · 현장 계약까지 일원화된 지원체계 첫 성과

전주시가 수출·상담 전시회 지원과 베 트남 등과의 지속적인 경제 교류 등을 바 다. 탕으로 지역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냈다.

시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2025 전 당 6~10회의 1:1 수출 상담이 이뤄졌다. 주시 수출상담 주간'을 통해 총 500만 불 규모의 수출·투자 성과를 창출했다고 27 원, 공동 전시관 구성, 상담회 연계 운영 일 밝혔다.

이는 KOTRA 수출상담회에서의 현장 계약 성과와 지난해부터 체계적으로 구 축해 온 베트남 협력 기반이 결합된 결 과물로, 그간 지역 단위에 머물렀던 해외 다. 판로 지원을 국가 수출 전략과 연계가능 한 수준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먼저 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 틀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KOTRA 붐업코리아 수출상담·전시회'에 9개 기 업을 파견하고 전주시 공동관을 운영했

행사 기간 전주시 부스에는 200여 명 의 해외 바이어가 방문했으며, 참여 기업

특히 시는 사전 바이어 조사와 매칭 지 등 준비 단계부터 계약 단계까지 지원을 일원화했으며, 그 결과 ㈜휴비스가 일본 바이어 등과 약 90만 불 규모의 수출 계 약을 현장에서 체결하는 성과로 이어졌

또 지난 2024년 11월 우범기 전주시장 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경제사절단

을 파견한 이후 약 2년간 베트남을 대상 으로 추진해 온 경제 교류 성과도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시는 이 과정에서 베트남 상공회의소 전략적 수출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VCCI)와 현지 유통기업(K-마켓 등), 한 인 경제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전 주시 우수기업 5개사 제품을 베트남 현 지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며 시장성을 검 증해 왔으며, 바이어 DB 구축, 수출 상담, 통관·유통 테스트 등 지속적인 실무 기 반을 마련했다.

지난 24일 전주시 드론스포츠복합센터 에서 열린 '2025 한·베 경제인 화합의 밤' 행사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추진된 것으 로, 고상구 세계한인회총연합회장과 김 완엽 DI VINA 대표 등 베트남 주요 바이 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어가 직접 전주를 찾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식품 수출과 현지

생산 투자, 관광·의료 협력 등 약 400만 불 규모의 계약 및 협약이 체결돼, 베트 남이 단순 교역 대상이 아니라 전주시의

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베트남을 전주시 수출기업의 실질적 거 점 국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 전용 상설 홍 보·판매관 설치 △현지 유통망 연계 판 로 지원 △상담·계약 DB 기반 사후관리 체계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지난 2024년에는 기반을 조성했고, 2025년에는 성과를 확 인했다"며 "내년부터는 베트남을 수출 전진기지로 삼아, 지역 기업이 안정적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11월 6일~26일 스타트업 모집

중기부, 'OpenData X AI 챌린지' 참여자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 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 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 에 따르면, 중기부는 공공기관이 출제한 과제를 AI를 활용해 해결 하는 'OpenData X AI 챌린지' 참가 스타트업을 내달 6일부터 26일까 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공공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현장 데이터를 AI 스타 트업에 공개해 국민생활에 실질적 으로 도움이 되는 AI 솔루션 발굴 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공모전에 과제를 출제하는 기관은 총 3곳으로 △중소기업 성 장·위험 예측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기 반 지원사업 추천 3개 분야 과제를 제출하고 기관들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는 가공 및 비식별화해 제공될 예정 이다.

공모전은 서류심사, 본선, AI 스 타트업 쇼케이스의 3단계로 진행 된다. 서류심사에서는 참가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알 고리즘 개발 방향, 과제 추진계획 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 가해 12월 초 15개 스타트업(과제 별 5개사)을 선정한다.

본선은 12월 10 '컴업(COMEUP) 2025' 개막식을 시작으로 1월 말까 지 진행한다. 본선에 진출한 15개 스타트업에 각 과제별 데이터 셋 전체본을 제공해 본격적으로 AI 모델을 개발한다.

개발을 돕기 위해 팀당 1천만원 의 PoC 자금을 지원하고 과제 출 제기관 실무담당자와의 소통체계

감염관리 인력 역량강화교육 실시

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예수병

원(병원장 신충식)이 완주군보건소

와 협력해 지난 24일 완주군 내 감염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인력

이번 교육은 전주시, 김제시, 완주

군, 진안군, 무주군 등 5개 지역을 사

업권역으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협력 체계 구축 사업' 일환으로 진행됐다.

또 교육은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협

력사업 세부 추진 내용 중 하나이다.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

를 구축하여 실시간으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AI 모델 성능 평 가 및 대면발표 평가를 통해, 개발 된 AI 모델의 정확도, 완성도, 모 델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하고, 소 상공인·중소기업 사용자들이 직접 사용해본 후 평가한 결과도 반영 하여 각 과제별 우승팀, 준우승팀 을 선정한다.

우승팀, 준우승팀으로 선정된 6 개 스타트업은 내년 2월 초 개최되 는 'AI 스타트업 쇼케이스'에서 개 발한 AI 모델을 발표·시연하고, 이 어지는 시상식에서 수상할 예정이 다. 향후, 수상 기업에는 창업지원, 융자·보증, R&D 등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를 검 토 중

이번 공모전의 신청 기간은 11 월 6일(목)부터 11월 26일(수)까 지이고, 신청 기간 전 과제이해를 돕기 위해 각 기관별 과제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 명회를 11월 6일 개최할 예정이 다. 'OpenData X AI 챌린지'의 보 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방법 등은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www. k-startup.go.kr)이나 중기부 누리 집(www.mss.go.kr)을 통해 알 수

김우중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 모전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 기관이 실제 사용하는 현장 데이 터를 AI 스타트업에 공개하여 국 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AI 솔루션을 발굴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공 공서비스 분야에서의 현장 수요와 데이터,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연결 되어 실제 변화를 만드는 AI 모델 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시군의회의장協, '공공의대법안' 통과 촉구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 위한 공공의대 설립 요구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7일 남원시의회에서 열린 제294차 월례회에 서 공공의대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 택했다.

이를 토대로 남관우 회장은 정부와 국 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 다.

협의회는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이 제안한 건의안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은 단순한 의사 수 증원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 지역 의료 불 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27일 남원시의회에 서 열린 제294차 월례회에서 공공의대법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의대 설립은 국민의 건강권 과 생명권을 지키는 국가적 사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 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인 력양성을 강조한 만큼 의대 설립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관우 회장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의 의료취약지 주민 들에게 꼭 필요한 공공의료 기반 확충의 출발점"이라며 "전북지역 의장단은 도민 의 염원을 모아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하도록 끝까지 힘을 모아가 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예수병원, 완주군 감염취약시설 감염예방관리 실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주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 점검

육아친화도시 조성 방안 논의

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 속 의원들은 이날 전주 인후동 육아종합 트 등을 점검했다. 윤철)는 27일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센터에서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부

보육 지원·지역 연계사업 등 점검 부모와 보육 종사자 지원 정책 등을 살폈 사 교육 지원, 어린이집 가정양육 지원사 업, 대체 교사 지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김윤철 위원장 등 복지환경위원회 소 현황, 아동 발달 지연 조기 발견 프로젝 있는 보육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또 동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및 다"고 말했다. 에서 보육 서비스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현황, 보육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철 위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 시와 더불어 부모가 안심하고 체감할 수 해서 관심을 두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

/정소민 기자

전주시, 민방위 시설 현장점검 실시

신속한 대응체계 점검 진행

전주시는 27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하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주지역 민방위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 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경주에서 열리 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시민을 안전

로 민방위 시설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은 △대피시설 5개소 △비상급수시

회의를 앞두고 북한 미사일 발사 등 급변 설 10개소 △경보시설 21개소를 대상으 부 관리 상태 및 안내·유도표지판 식별 로 관리 실태를 살필 예정이다.

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정기적으 _ 하보도 내 지정 대피시설에 대한 집중 점 _ △경보 시설의 정상 작동 및 방문자 명부 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대피시설의 내·외

가능, 상시 개방 여부 △비상급수시설의 특히 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지 주변 환경 청결 및 수질검사서 게재 여부 비치 여부 등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소방본부, '안전산행 주의 당부'

9~10월 산악사고 집중 발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도내 산악사고가 매년 가을철에 집중 발생 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도내 산 악사고는 총 2034건으로, 이 중 9월과 10월 두 달간 발생한 사고가 400건 이상(전체 약 20%)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산행 안전수칙으로 △사전 등산로 파악 및 장비 꼼꼼히 확인하기 △하루 산행은

8시간 이하로, 해지기 두 시간 전 하 산하기 △등산로가 아닌 곳 출입하지 않기 △산행 전후 스트레칭으로 부상 예방하기 △산행 중 음주나 단독 산 행 삼가하기 △우천 시 계곡 산행 피 하기 등을 강조했다.

교육에는 완주군 내 감염취약시설

58개소의 대표자 및 감염관리 담당자

가 참석해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역량

이날 △시설 내 환경관리 △종사자

감염관리 △뷰박스를 활용한 손씻기

실습 등 실무 중심의 강의를 진행됐

특히 이번 교육은 지역책임의료기 관과 기초지자체 보건소가 긴밀히 협

력해 감염병 예방 역량을 향상시킨

/정소민 기자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행 중 부상이나 길을 잃는 등 위 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동을 멈추고 주변 산악위치표지판 번호를 확인해 기억하고, 휴대전화 위치 공유 기능 을 활용해 즉시 119에 신고하면 정확 한 위치 파악과 신속한 구조에 도움 이 된다. /김영태 기자

전북소방본부, 화학사고 대응능력 향상 위한 기관 간 비교행정 실시

익산119화학구조센터 방문 대응체계 점검·지식 교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 응 비교행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숙)는 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강화와 화학사고 등 특수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능력 향상을 위한 상호 지식 교류 △신규

위해 이달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3 무인파괴방수차량의 현장지원 경험 및 일간 119특수대응단 화학구조대가 익산 은용 방안 공유 △출동대별 보유 차량 및 119화학구조센터를 방문해 화학사고 대

이번 비교행정에서는 △화학사고 대응

유해화학사고 대응장비 정보 교환 등 실 질적인 논의를 통해 현장 대응 협업체계 를 강화했다.

이경승 119특수대응단장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화학사고와 폭발사고 등에 대 응하기 위해 기관 간 정보교류는 매우 중 요하다"며 "이번 교류가 화학사고 대응 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안전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앞 으로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체 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도-(사)세계한인경제무역協, 올림픽 유치 '맞손'

한인경제인 네트워크 연대…국제적 홍보 지지 확산 기반 마련

벤시아에서 열린 제29차 세계한인경제 인대회 개회식에서 사단법인 세계한인 경제무역협회(OKTA)와 전주 하계올림 픽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이번 협약은 전 세계 71개국 150개 지 회, 28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 홍보가 가능한 단계 진입시,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활동을 해외에 널리 알리 고 국제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연대 최초로 도전 중인 전주 하계올림픽의 국제 공감대 형성과 유치 추진 동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은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인천 송도컨 공식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전북특별자 치도에서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세계 한인경제무역협회에서는 박종범 회장 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 이 자리에는 재외동포청 김경협 청장, 인천 유정복 시장, KOTRA 강경성 사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원이 간사 등 1500여 명이 함께해 협 약의 의미를 더했다.

인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주 하 계올림픽 유치 활동을 해외에 적극 홍 보하고, 해외 주요 인사와 단체를 대상

으로 지지 기반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또 협회가 주관하는 국제행사와 연계 한 홍보부스 운영, 공동사업 추진, 경제

교류 프로그램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는 1981년 미 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경제인 단체로, 모국의 무 역 증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 중인 영 산그룹 박종범 회장이 제22대 회장으로 협회를 이끌고 있으며, 전 세계 한인 경 제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청년 차세대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세계 한 육성, 경제교류 확대 등 다양한 글로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로 개척에 나선다. "세계 곳곳의 한인 경제인들과 전주 하

계올림픽 유치를 향한 협력의 첫걸음을 내딛게 돼 뜻깊다"면서, "앞으로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대내외적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올림픽 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가 주관하 는 제29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전 세 계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국내 기 업인 등 6000여 명이 참여하는 세계 최 대 한인 경제행사다.

대회 기간 동안 기업 전시, 수출 상담 회, 경제포럼, 문화교류 행사 등이 진행 되며, 전북 도내 ㈜대성메디칼(익산), 라 인플라츠 코스메틱(고창), ㈜셀코어(완 주), ㈜유제이(군산), ㈜코빅스(남원) 등 8개 기업이 참가해 수출 상담과 해외 판

/김영태 기자

전북지역 출생아 수, 전년대비 2.4% 증가

2024년 호남·제주지역 인구동향발표

2024년 전북지역 출생아 수는 총 6780명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것 으로 확인됐다.

24,195명으로 전년대비 1.5%(351명) 증가했으며, 지역별 전남(8,225명), 전 북(6,780명), 광주(6,034명), 제주(3,156 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 전남(5.1%), 전 북(2.4%) 증가, 광주(-2.2%), 제주 (-2.0%)는 감소한것으로 집계됐다.

률에서는 제주(4.7명), 전남(4.6명), 광 주(4.3명), 전북(3.9명) 순이며, 전년대 비 전남(0.3명), 전북(0.1명) 증가하고 '24년 호남·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광주, 제주(-0.1명)는 감소세를 보였다. '24년 모(母)의 평균 출산연령은 전 북(33.1세), 제주(33.4세), 광주(33.3세), 전남(33.0세) 등이다.

전남(20,108명), 전북(17,110명), 광주 전북(11.5%), 전남(10.4%), 광주(7.8%) (9,136명), 제주(4,902명) 순이고 전 년대비 제주(4.8%), 광주(3.0%), 전남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 조(粗)출생 (1.6%)은 증가하고, 전북(-0.5%)은 감 전북(-0.8%p), 제주(-0.2%p) 모두 감소

> '24년 호남·제주지역 혼인건수는 전 남(7,049건), 전북(6,388건), 광주(5,688 건), 제주(2,744건)이며, 전년대비 전북 (16.5%), 전남(14.5%), 광주(10.0%), 제 주(5.0%) 순으로 모두 증가했다.

'24년 호남·제주지역 전체 혼인 중 외 다. '24년 호남·제주지역 사망자 수는 국인과의 혼인 구성비는 제주(13.2%),

순이며, 광주는 전국(9.3%)보다 낮았고 전년대비 전남(-1.9%p), 광주(-1.2%p), 세를 보였다.

'24년 호남·제주지역 이혼건수는 전 남(3,473건), 전북(3,453건), 광주(2,258 건), 제주(1,648건)이며, 전년대비 제주 (10.4%), 전북(1.0%)은 증가하고, 광주 (-5.9%), 전남(-1.3%)은 감소로 나타났

/정혜민 기자

국민연금공단, 거주불명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 현장 홍보

전국노숙인 시설 찾아 안내 12월 5일까지 적극추진

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협력해 기초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연금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이번 홍보는 전국의 노숙인 복지시설 을 방문하며 거주불명 등록 어르신에 게 기초연금 제도와 신청 절차를 안내 청자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는 게 골자다.

지대 어르신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 분 미노출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고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거주불명 등록 상태라 도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이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에 맞으면 신청한 달부터 급 여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거주불명자는 신분 노출을 피 하거나 가족과도 관계가 단절돼 연락 처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문자, 우편 등 일반적인 행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한 정 홍보가 닿지 않아 신청 대상인데도

> 공단은 이러한 사회적·행정적 여건 을 고려해 12월 5일까지 거주불명자 십숭 홍보 기간을 갖고 석극석으로 신

김태현 이사장은 "신분 노출을 꺼리 이를 통해 제도 접근이 어려운 사각 는 어르신들은 고객센터로 연락해 '신 있다"고 말했다.

> 또 "채무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압류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



국민연금공단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와 협력해 기초연금 현장 홍보를 추진한다.

신들께 기초연금 혜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 다.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온라인서 확인한다.

84종 지침 웹페이지에 공개 전류허용기준이 낮은 경우, 빨간색으

산물 84종 농약안전사용지침을 온라 부적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인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디지 털화해 웹페이지를 구축, 공개했다.

수출 농업인과 수출업체가 필요한 정 코드)로 접속할 수 있다. 보를 현장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할 필 요가 있다는 요청이 늘어 웹페이지를 개설한 것이다.

농약안전사용지침은 국가별·작물별 맞춤 검색 기능이 적용됐다.

사용자가 검색 화면에서 수출대상 보할 계획이다. 국가와 수출농산물을 선택한 뒤 검색 있는 농약의 용도, 적용 병해충, 품목 명 등 관련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 개인용 컴퓨터에 접속해 손쉽게 수출 다.

검색 창에 직접 입력도 가능하다. 또 모바일 최적화 화면을 적용해 휴 대전화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 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수출대상국가의

로 표시해 농가가 농약을 사용할 때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수출농 안전사용기준을 미리 점검하고 수출

농업기술포털 '농사로(nongsaro. go.kr) 〉 관심콘텐츠 〉 수출농산물 농 기존에는 책자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약안전사용지침' 또는 정보무늬(큐알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수출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 농가와 업체,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 이번에 공개한 디지털 수출농산물 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농 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 공사(aT)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홍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 최달순 을 누르면 수출농산물에 사용할 수 과장은 "디지털 수출농산물 농약안전 사용지침은 농업인이 스마트폰이나 대상 작물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확 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 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TP, 전주·남원·임실·순창 기업 현안 청취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개최

원, 임실, 순창, 전주 등 전북 지역 기업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25년 제10 회 선도기업 지역별 대표자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표자 협의회' 개최는 전북특별자치도 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의회는 10월 27일 전주 소재 IT기업 (주)나우리에서 진행됐다.

이날 선도기업 대표를 비롯해 전북 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 의 않겠다"고 전했다. 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참석자들은 (주)나우리의 기업 탐방 을 통해 IT기업의 생태계와 기술 현황 을 둘러보며 지역 기업 간의 협력 방안 우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기술융합을 통한 성장 전략, 지방 소멸시대의 인재유출 대응, 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심 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올해 도내 전역을 순회하며 총 10회에 걸친 지역별 대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남 자 협의회를 운영했으며, 향후에도 도 의회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 해소와 성 장 기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정혜민 기자

김이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2025년 제10회 선도기업 지역별 대 "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 다.

> 또 "오늘 청취한 의견들을 정책에 적 극 반영해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확 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전북테크노파크 이종한 기업지원단 장은 "도의원님께서 직접 현장을 찾아 주셔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한 것은 매

이어 "협의회에서 나온 소중한 제언 을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회-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그리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도내 산 체계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

/정혜민 기자

'제5회 양봉요리 경연대회' 본선열려

대상 '밤꿀 디저트' 선정

한국양봉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농 림축산식품부, 한국양봉농협, 한국 양봉학회가 후원한 '제5회 양봉요 리 경연대회'본선이 지난 25일 대 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이들 10팀이 참가해 '양봉산물을 활용한 한 입 거리 요리'라는 주제로 솜씨를 겨 었다.

강레오 요리사(셰프), 농심 스낵 개발팀장 등 5인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은 출품작을 직접 시식하며 맛과 창의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 으로 평가했다.

심사 결과 대상 1팀, 최우수상 3 팀, 우수상 3팀, 특별상 3팀을 가렸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는 양봉산물 밤꿀을 이용해 '가을 한 입 밤꿀 몽블랑 수플레'를 만든 '김

결이' 참가자가 선정됐다.

묵직한 풍미와 단맛을 내는 밤꿀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과 (사) 과 잼을 이용해 만든 크림을 수플 레 위에 올린 후식(디저트)이다.

심사위원들은 주제에 맞게 간편 하면서도 맛과 영양이 조화를 이룬 다며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강레오 요리사가 국산 벌꿀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를 만드 는 특별행사도 열어 큰 호응을 얻

농촌진흥청 양봉과 한상미 과장 은 "올해로 5회를 맞은 양봉요리 경 연대회는 조리법 발굴에 그치지 않 고 요리를 상품화해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힘을 쏟았다"라 며, "지자체 홍보 협조, 강레오 요리 사와의 협업, 실용화를 위한 식품기 업과 청년 양봉인들의 참여로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산 양봉산물에 많은 관 심과 애정을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농관원,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

규격 포장재 출하 당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2025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검사 를 지난 23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357개 검사장에서 실 시한다고 밝혔다.

(매입물량)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배정된 포대벼 검사물량은 총 83,254 톤으로 일반벼 68,842톤, 가루쌀벼 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12,994톤, 친환경벼 1418톤이다.

(매입대상) 2025년산 메벼로서 정부 가 2025년도 시·군별 매입대상 품종 으로 사전 지정한 2개 품종(가루쌀은 '바로미2' 품종)에 한하며 일반벼와 친 환경벼는 수분 13.0~15.0%, 가루쌀벼 는 15% 이하로 건조해 800kg(대형)과 40kg(소형) 단위의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매입가격) 수분, 제현율, 피해립 등 품위검사 결과에 따라 특·1·2·3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벼의 매입가격이 차등 결정된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매입검사 주요사 항은 기존 포장재(등급 표시방법 변경 전) 사용기한이 작년 말로 종료됨에 따 라 올해부터는 포장재에 검사등급(특 등, 1등, 2등, 3등, 등외)란이 표시된 규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올해 깨씨무늬병 확산과 수확기 강우에 따른 도복 및 수발아 피해로 벼 품위저하가 우려되지만, 소속 검사관에 대한 지속 적인 교육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공정 하고 친절한 매입검사가 진행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혜민 기자



전북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

발굴 프로젝트1:1 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는 27일 전북테크비 즈센터 1층 대강당에서 14개 시군 및 관계기관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간담회를 개최했 다고 밝혔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 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 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자본을 활 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 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 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 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모펀드는 민간자금 등과 자펀드를 결 성해,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 수목적법인(SPC)에 투자해 다양한 지 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모펀드의 마중물 투자 및 위 했다. 험분담과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 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단법인 지역활

성화투자개발원이 펀드의 기본개념 및 금융구조 등을 교육했다.

또한 모펀드 운영사인 한국성장금융 이 프로젝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질 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이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이 발굴한 프로젝트를 대상 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됐다.

금융 전문가들이 사업성을 검토하고 금융 구조 설계를 지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토 대로 공공성과 수익성을 갖춘 유망 사 업을 추가 발굴하고, 시군과 협력해 대 규모 프로젝트 유치를 본격화 할 계획 이다.

김인태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 원실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유치 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매력적 인 사업을 발굴하는 데 있다"고 강조

이어 "중앙부처 및 민간 투자기관과 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아이디어가 실 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 력을 집중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이 미쳤다" 문정복 의원 발언 사과 촉구

전북교원단체, 사립 유치원 교육비 지원 사실 왜곡 강력 반발

전북교원단체들이 최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를 두고 국감장에서 고성을 지른 더불 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 다.

일 성명서를 내고 "문정복 의원은 정부 의 무상교육비 11만 원 지원을 두고 '7 만 원을 깎았다'고 사실을 왜곡하며 '전 북교육청이 미쳤다'라는 막말까지 서슴 지 않았다"며 "이미 5개 시·도교육청(전 북·인천·충남·경남·울산)이 지자체 예 산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걸 알면 서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전북지부는 "전북교육청은 2022년 '전 북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만 3~5세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 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학부모

가 원비를 부담하지 않도록 명시돼 있 으며, 공립과 동일한 수준의 무상교육 체제가 이미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비 11 만 원은 전국 단위의 보편지원 정책"이 라며 "이미 무상 교육을 시행 중인 지역 에 동일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재정 건전성에도 맞지 않는

전북교육청의 이번 조정은 이러한 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27 칙에 따라, 무상교육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혜택이 이중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예산을 재편한 것"이 라고 반박했다.

> 또한 "이번 정부 지원에는 공립유치 원도 포함됐지만, 이미 전액 무상교육이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단가가 낮게 책 정됐다"며 "병설유치원이 원아 감소와 시설 노후화로 폐원되는 상황에서 정부 와 국회는 공립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문 의원의 '전북 교육청이 미쳤다'는 발언은 교육정책에



전북교원단체들이 최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고성을 지른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 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본>

대한 무지와 공공성에 대한 이해 부족" 이라며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해 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북유아교육연대는 26일 성명 촉구했다. 을 내고, 정부의 추가 지원에 따라 교육

청의 사립유치원 지원 금액을 표준유아 학비에 맞게 조정한 것을 두고 폭언한 것은 취지를 왜곡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최성민 기자

자녀 흡연 허락했다며 항의한 학부모 결국 공개 사과

"인성인권부장 상처 치유에 도움 됐으면"

전북 지역의 한 학부모가 고등학생 자 녀의 흡연 지도를 담당한 교사에게 협박 에 가까운 항의를 한 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했다.

학부모 A씨는 27일 공개사과문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로 인해 상 처 받은 인성인권부장 교사가 하루 빨리 회복해 학생이 있는 곳으로 복귀하셨으 면 한다"고 밝혔다.

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 엄마가 학생 이 중학교 때 처음 흡연을 시작한 것을 알게 됐고, 몰래 흡연을 하다가 다른 일 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보호자 울타리 안 에서 금연 지도를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 해서였다"고 설명했다.

지종을 말씀드리고 최대한 선처를 부탁 드리려는 취지로 한 것"이라며 "실제 학 교 밖 흡연이 지도 대상인지 몰랐다. 하 다. 지만 통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거친 발언을 했다. 명백한 제 실수"라고 했다.

A씨는 "아버지 입장이 아닌 교사 입장 이어 그는 "청소년기 흡연에 대해 반대 에서 생각해 보면 제 행동은 분명히 잘못

됐다"며 "심심한 사과 말씀드린다. 제 공 개 사과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 했다. 북지부와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그는 "인성인권부장과의 통화도 자초 전북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일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

뒤 학부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인성인권부장에게 "학교 구했다. 밖에서 피운 건데 왜 문제 삼냐", "내가

흡연 허락했다",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 들겠다"고 위협했다. 또 교장실을 찾아가 흡연 장면을 촬영한 교사를 초상권 침해 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해당 교사는 시청 여성아동과 조사를 앞두고 있다.

교사노조는 "학생 생활지도를 방해하 고 교사에게 위협적 언행을 일삼은 명백 한 교권 침해"라며 "교육청은 이번 사건 인성인권부장은 학생들 진술을 받은 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A씨에 대 한 합당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행사성 경비 등 30% 이상 감축

내년도본예산편성현황점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7일 유 정기 교육감 권한대행 주재로 2026 년도 본예산 편성 현황 점검을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급격히 악화된 지방교 육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략 마련의 일환이다.

현재 전북교육청 예산 상황을 살 펴보면 최근 3년간 세수 결손 등으로 보통교부금은 약 9,012억 원 감액됐 고, 특히 2026년도 교부금은 전년대 비 약 583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

주요 세입은 감소한 반면 인건비. 계속비 등 경직성 경비는 급격히 늘 어나면서 재정 운용 여건이 크게 어 려워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지난

9월부터 전 부서와 기관이 참여하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행사성 경비·연수비·소모성 경비 등 30% 이상 감액 및 자산취득 최소 화 등 시업규모 축소, 계속비 및 시설 사업 재검토 등 전면적 지출 구조 개 선 통해 본예산 편성의 기초를 마련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6년도 본 예산을 '미래 교육 발전'과 '재정의 지 속 가능성 확보'라는 두 트랙 전략으 로 추진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합심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균형과 교육의 지 속가능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 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장기 재정구 조 개선과 한정된 재원이지만 사업 의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재정 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직업계고 진로 미결정 학생 취업목표 설정

직업계고 취업캠프 운영 학생 80여 명 참여

전북교육청은 27일 전주 이비스앰배 서더 호텔에서 도내 직업계고 진로 미 결정 학생 및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나를 찾는 하루, 직업계고 취업로드맵' 취업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직업계고 진로 미결정 및 됐다.

취업희망 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취 업목표 설성과 진로 설계 기회를 제공 하고, 전문가 취업특강과 직무탐색 활동 을 통해 취업마인드 함양 및 진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취업마인드 특강 △직장예절 및 비즈니 스 매너 교육 △희망 진로별 맞춤형 상 담 △성공 취업 부루마블 등으로 구성

들 통해 실실적인 쥐업선략을 배우고, 진로 방향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로 탐색과 취업 목표 설정을 지원하고, 주요 프로그램은 △선취업 후진학 및 향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프 비 역량을 기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로그램을 개선하는 등 맞춤형 취업 지 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또, 교육 이후 학생들이 실제 취업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로 연계될 수 있도록 희망 진로 찾기 및

참여 학생들은 이날 전문 강사의 지도 맞춤형 취업 상담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이번 취 도교육청은 캠프를 통해 학생들의 진 업캠프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현실적인 취업 준 "앞으로도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최성민 기자

황실문화재단 '대한황실공예대전 수상작' 선정

'안고지기 삼층장' 대상

제13회 대한황실공예대전 황실문화재 단 신품상(대상)이 선정됐다.

13회 대한황실공예대전 황실문화재단 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신품상(대상)으로 소중한 작가 '안고지 기 삼층장'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대전을 통해 '황실회화, 섬유공 예, 금속공예' 분야 작품을 선정했지만 올 해는 황실도자, 황실목칠공예, 황실한지 공예 문야도 확대했다.

이를 토대로 대한황실공예대전 운영위 원회(박종렬 위원장)는 지난 1월 정기총 회를 갖고, 2차 자문위원회, 3차 운영위원 회, 8차 실무위원회를 거치며 공예대전을 준비해 왔다.

또 한국미술협회 및 18개 지회 협조를 받으며 공예대전 심사 공정성을 높혔다. 작품 선정은 지난 10월 22일 기린미술

관에서 황치석(서울여대 교수)심사위원 장, 방화선 부위원장, 6명의 분야별 심사 위원들이 진행했다.

심사위원들은 이날 작품 적합성, 예술 황실문화재단(총재 이석)은 2025년 제 성, 기교성 및 완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수장작으로는 신품상(대상)에 소중한 작가 '안고지기 삼층장','최우수상 묘품상 정정혜 작가 '화조도','우수상 능품상에 김 영준 작가 '수복의 빛' 이층나전칠기장이 선정됐다.

> 일품상 수상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지 사상 조애리 작가 '봉황도', 교육감상 김선 희 작가 '꽃도련님', 전주시장상 이인화 직 가 '신경유철릭'을 각각 선정했다.

이외 장려상에는 11명, 특선작으로 14 명이 수상 이름에 올랐다.

수상작들은 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 지 기린미술관 전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축제가 많은 가을철! 지역축제 안전사고 주의하세요!



축제 방문 이 주의아항

질서 유지











축제 진행 중 주의아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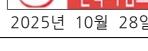
준수하기



스마트폰 주의



안전선 준수하기 폭축 사용 자제하기





익산 인화동 솜리문화마을 일대서 '보물찿기축제' 개최

익산시가 인화동을 배경으로 현실과 가 상을 넘나드는 특별한 축제를 선보인다.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는 오 는 11월 1~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 지 인화동 솜리문화마을 일대에서 '2025 제3회 보물찾기축제-금괴를 찾아라'를 개 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솜리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금괴 이야기'에서 착안해,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에 첨단 기술 을 더한 체험형 문화축제로 기획됐다.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은 'AR(증강현실) 보물찾기'와 '솜리 탈환작전 RPG(역할수행 게임)'체험이다.

'AR 보물찾기'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 제 거리 위에 숨겨진 가상의 금괴와 보석을 찾는 체험이다. '솜리 탈환작전 RPG'는 참 가자가 1920년 솜리독립군이 돼 일본군 금 고 속 금괴를 탈환하는 몰입형 게임이다.

현장에서는 보물찾기와 솜리 탈환작전 외에도 보석공예 체험 △인화동 생활문화 전시 △지역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작은 그 림 아트페어' △밴드·오케스트라·댄스 공 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아울러 플리마켓과 먹거리존이 함께 운영돼 방문 객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활기찬 축제의 장 이 될 전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문화도시지원 센터 누리집 또는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 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30일 연지아트홀서 '로봇레이저버블쇼' 무료 공연

정읍시가 10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을 선보인다.

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연지아트 홀에서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로봇 레이저매직버블쇼'를 무료로 개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 하는 복합 공연으로, 로봇 퍼포먼스의 역동 적인 움직임과 레이저 조명의 화려함・마술 의 신비로움·버블쇼의 환상적인 시각효과 가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공연을 통해 일상 속 문화 향 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 분의 많은 관람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 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초목회단체전··작품30여점전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장미 갤러리 2층에서 초묵회 단체전 '제4회 초묵 회전'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전통 수묵화와 문인화의 미 학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초묵회 회원들의 단체 전시회로 한국화, 문인화, 채 색화 등의 작품 30여 점이 전시된다.

정기적인 작품 활동과 전시를 이어오고 있는 초묵회는 전통 회화의 깊이를 탐구하 며, 시대적 감수성을 함께 반영하고자 하는 작가들의 모임이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에서 자연을 향한 존 중과 관찰, 그리고 내면의 성찰을 바탕으로 수묵의 먹빛에 삶의 이야기와 사색을 담아 냈다.

특히 '먹'이라는 단색의 재료가 보여주는 번집과 농담(濃淡)으로 표현된 무한한 여운 과 울림이 관람자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 으로 기대된다.

초묵회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통 한국화 가 지닌 예술적 가치와 현대적 확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라며 "그림을 통한 사색과 감동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개사동 패총' 학술조사연구 착수

신석기시대~삼국시대 생활상 자연환경 확인 가치제고활동등추진

군산시는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27일부터 '군산 개사동 패총'에 대한 학 술조사연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군산 개사동 패총'은 과거 사람들이 버린 조개껍질 무더기로 신석기시대부 터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토기, 석기, 골 각기, 동물 뼈 등이 조개껍질 사이에서 썩지 않고 남아 있어 당시 사람들의 생 활상과 자연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중 요한 문화유적이다.

시는 이번에 조사할 '군산 개사동 패 총'은 50cm 이상의 두께로 켜켜이 쌓여

있는 조개껍질과 청동기~삼국시대 유 물이 함께 발견돼 당시 생활상과 고고 학적 편년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 요한 유적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

군산 미룡동 고분군 등 다수의 중요 유적이 분포하고 있어 앞으로 주변 유 적과 연계한 조사성과가 기대되는 곳 이다.

군산지역은 서해에서 금강·만경강 으로 연결되는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 지로 군산 개사동 패총, 군산 미룡동 고분군, 군산 선유도 고려유적 등 선 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650여 개소 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된 중요지 역으로 꼽혀왔다.

이번 조사는 2025년 4월 군산시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가 '군산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 이후 처음으 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군산시와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 아울러 인근에는 군산 선제리유적, 는 이번 유적조사 외에도 △군산지역 문화유산 조사연구 협력 및 공동사업 개발 추진 △군산지역 문화유산 활용 을 위한 학술 및 행정지원 협력 △기타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제반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시 문화유산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준 국립완주문화 유산연구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밝히며 "군산시는 앞으로도 군산 다움(군산의 가치와 고유성)을 찾기 위 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스마트 관제로 시민 안전망 강화

스마트 안전도시 도약

익산시가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 고 있다.

익산시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 맞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은 인공 지능 기반의 딥러닝 영상분석 기술 을 통해 CC(폐쇄회로)TV 영상 속 인물과 차량 등 객체를 자동 식별 하고, 배회·침입·폭력·넘어짐 등 이상 행동을 실시간 감지해 CCTV 통합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표출한

이를 통해 사건·사고 사전 예방

과 신속한 대응에 효과적이다.

시는 현재 신동 대학로, 여성안 심구역 등을 중심으로 약 500대의 CC(폐쇄회로)TV에 지능형 선별관 제 시스템을 적용했다.

올해까지 우범지역에 200대를 추가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관제 효율성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AI 시대에 부 합하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통 해 사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민 의 안전을 더욱 견고히 지켜나가겠 다"며 "앞으로도 지능형 CCTV 통 합관제센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구절초 꽃축제, 25만 명 발길 사로잡다

13일간 일정 성료 지역 먹거리 판매 등 호평

대한민국 구절초의 성지 정읍에서 열 린 제18회 구절초 꽃축제가 지난 14일 부터 2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을 성황 리에 마쳤다.

구절초 개화기인 10월 초부터 축제 기간까지 총 25만여 명이 다녀간 것으 로 집계된 가운데, '맛있는 정원' 등 4 가지 테마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 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축제는 '맛있는 정원' '작가의 정원'·'치유의 정원'·'놀이의 정원'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유명 방송인들이 관광객과 어 우러진 '명사 초청 콘서트'에는 많은 관람객이 몰려 소통으로 하나 되는 축 제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지역의 먹거리·제품을 선보인 식당·특산물먹거리판매장 등 판매 행 사에서도 우수한 품질·착한 가격이 호 평받았다.

죽제 기간 현상을 잦은 많은 관광객



사한 꽃백일홍·코스모스 등의 가을꽃 향연, 2만㎡의 넓은 잔디정원에서의 휴 식·놀이를 즐겼고, 짚와이어도 인기리 에 운영됐다.

시는 축제 후반인 10월 23일부터는 입장료를 7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하

이는 늦게 방문한 관광객들의 아쉬운 마음을 위로하는 등 관광객과 소통・공 감하는 축제 행정으로 호평이 이어졌 다.

은 15만㎡의 솔숲 구절초 경관과 함께 이어지고 있다며,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들꽃정원의 화 위해 정원을 무료로 개방할 방침이다.

강연천 정읍시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13일간의 축제 여정이 안전 하게 마무리돼서 축제를 준비해 온 모 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축제 기간 다녀간 관광객들이 좋은 기억으로 내 년에도 다시 찾아주길 바란다"고 밝혔 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의 명품인 구절 초 지방정원에서 개최한 이번 축제에 서 구절초 정원의 인기·잠재력을 충분 히 확인했다"며 "향후에도 구절초 꽃 시는 축제 후에도 관광객들의 행렬이 축제가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갈 수 있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시,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127명 모집

조사원 등 11월 12일까지

오는 11월 2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 시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를 앞두 고 정읍시가 현장조사 인력 확보에 나 섰다.

시는 가구 방문 조사를 담당할 조사 원 107명과 관리요원 17명 등 총 127 명의 조사요원을 11월 12일까지 모집 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인원 중 조사원은 가구 방문 조 사를 담당하며, 총관리자·조사관리 자·조사지원담당자 등 관리요원은 현 장조사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 할을 맡는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시민 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활용이 원활하거나 인구주택총조사 등 대규

모 통계조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 우 우대 채용한다.

다자녀가구·장애인·저소득층 역시 우대 대상이다.

신청은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 사 누리집(affcensus.go,kr)을 통하거 나, 정읍시 통계조사종합상황실에 방 문해 할 수 있다. 합격자는 11월 14일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2025 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의 모 든 농림어가를 대상으로 11월 20일부 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된다.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인터넷조 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1일부터 조사원이 태블릿PC를 이용해 가구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요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 항은 정읍시 통계조사종합상황실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읍면동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 실무교육 이해도 실적 향상 등 역량 강화 들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미나실에서 읍·면·동 통합문화이용권 을 통해 현장의 전문성과 업무 역량 (문화누리카드) 담당자 30여 명을 대 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통합문화이용권 사 업 이해도 향상 \triangle 합동평가 실적 향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간 14상 △이용률 제고를 위한 담당자 역 만 원을 지원해, 공연·전시·도서·체 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특히 지역 주관처인 전북특별자치 도문화관광재단 교육문화팀 소속 담 당자가 직접 참여해 사업 방향과 운 영 체계를 현장에서 공유하며 실무적 인 경험과 지식을 제공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읍·면·동 담당자

문화복지 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역 군산시는 27일 콘텐츠팩토리 3층 세 _ 할을 담당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 이 한층 강화되길 바란다"라고 전했 다.

> 통합문화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육·관광 등 다양한 문화 폭넓게 활용 할 수 있는 복지사업이다.

> 군산시는 문화 접근성이 상대적으 로 낮은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본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참여

군산사랑상품권사용자에 혜택…소비촉진도모

군산시가 오는 29일부터 11월 9일까 지 12일간 정부가 추진하는 '코리아 그 랜드 페스티벌'에 참여해 군산사랑상품 권 이용자에게 파격적인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성장하는 경제'를 슬로건으로 한 대한 백 혜택까지 제공하기로 해 시민들의 민국 최대 규모의 국가통합 소비 활성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사 기간 내에 군산시는 모바일 및

가로 5% 캐시백으로 적립해주는 특별 행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총 18%의 혜택 을 체감하게 된다. 이번 행사는 총 175억 2천만 원 규모

로 진행되며, 국비 8억 7천 6백만 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특히 군산시는 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모바일·카드 상품권을 사용할 이번 행사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경우, 월 최대 3만 5천 원의 추가 캐시 소비 촉진과 경제적 부담 완화, 지역경 인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코리 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소 이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한 추가 캐 비자에게 기존 할인율 13%에 더해 추 시백 혜택은 고물가 시대에 가계 소비



화 프로젝트로 시민 소비 촉진과 지역 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 를 지원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해 침체 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 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제36회 정읍사문화제, 호응 속 폐막

시민·관광객소통축제자리매김

정읍시를 대표하는 문화축제인 제 36회 정읍사문화제가 지난 25일과 26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기리는 이번 축제는 전통 제례부터 인 기 가수 축하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 조시켰다. 그램으로 시민·관광객의 뜨거운 호응 을 얻었다.

올해로 36회를 맞은 정읍사문화제 는 전통의 깊이와 현대의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꾸며졌다.

축제 첫날인 25일에는 채수의례·정 읍사 여인제례·기념식을 시작으로 축 하공연이 이어졌다. 이날 무대에는 국 민·관광객 모두가 즐기며 소통하는 축 민가수 설운도·김다현 등이 출연해 큰 박수를 받으며, 시민·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펼쳐 고, 전국적인 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

26일 열린 정읍사가요제 본선 무대

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10명의 참 가자가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였다. 그 중 김한솔 씨가 대상을 차지하며 영예 의 주인공이 됐고, 상금 300만원·전북 일 이틀간 정읍사문화공원 일원에서 가수협회 인증서를 수상했다. 이날 초 대가수 송가인·김미주가 무대에 올라 백제가요 '정읍사'의 숭고한 사랑을 열정적인 무대로 시민들의 뜨거운 환 호를 받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

> 이 밖에도 축제 기간 정읍사를 주제 로 한 다양한 체험 부스・먹거리 부스 가 운영됐다. 또한 최한나 강사의 역사 강연·정읍 역사 도전 골든벨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사문화제가 시 제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정 읍사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5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 장학금 지원

30일~11월 5일까지 접수 75명·학기당 1백만원지급

익산시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로 총 75명을 선발한다. 을 덜기 위해 '다다익산 장학생'을 선발

율)은 오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용은 익산사랑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2025년 하반기 다다익산 장학생' 신청 확인하면 된다.

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5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 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소재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제외)을 대상으 바란다"고 말했다.

선정된 장학생에게는 학기당 1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신청은 방문 (재)익산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정헌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

정헌율 이사장은 "이번 장학금이 다 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지 역 인재가 꿈을 이어가는 발판이 되길

한편, 익산사랑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진로·진학 컨설팅 △익 산사랑·다다익산·도전인재 장학생 선 발 △수도권 행복기숙사비 지원 등 다 양한 장학사업을 펼치며 교육 복지 향 상에 힘쓰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전북타임스

새만금전주간고속도로 개통앞두고상생시너지 기대…내달21일개장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7일 ㈜풀무 원푸드앤컬처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 로 개통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김제 휴게소'운영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성 주 김제시장과 이동훈 ㈜풀무원푸드앤 컬처 대표가 참석해 오는 11월 21일부 터 운영 예정인 김제휴게소를 통한 다 각적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

이번 협약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민 최우선 고용 △김제휴게소 운영과 다. 활성화를 위한 신속·원활한 행정지원 협력 △상호 다각적인 지원방안 모색 등 지역과 기업의 상생을 위해 함께 노 력하기로 했다.

'김제휴게소'는 '새만금-전주간 고속 도로' 새만금과 전주방향에 각 1개소 씩 총 2개소가 개장할 예정으로 ㈜풀무 원푸드앤컬처가 운영사로 선정됐으며, 각 휴게소는 식당, 즉석매장, 편의점, 카 페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주유소가 조

특히 새만금방향 휴게소에는 2층에 다. 백산저수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복

합 문화형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전자 들에게 휴식과 힐링을 제공할 예정이

㈜풀무원푸드앤컬처 이동훈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김제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김제휴게소가 많은 운 전자에게 편안한 휴게·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과 지역사회의 상생이 필요하다"며 "김제휴게소가 지 역을 대표하는 명품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전했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출생아 1인당 최대 1천만원 지원

부안형 태아보험 도입 등 임신출산 지원 대폭확대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저출산 위기 극복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오 는 2026년부터 모자보건사업을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개편을 통해 현금과 바우 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합·강화 해 출생아 1인당 받을 수 있는 총지원 규모를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확대 한다.

특히 군은 전국 최초로 첫째아부터 회사업으로 제시했다. 적용되는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해 임신 단계에서부터 의료비 위 험을 선제적으로 보장해 출생 이전부 터 보호하는 출산 안전망을 구축할 예 정이다.

개편안에는 임신축하금 신설과 산모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무료화, 대 폭 인상된 부안형 산후조리비, 저소득 층 기저귀·조제분유 첫째아 확대, 산 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등 임신 계획 단계부터 출산・산후 회복에 이르는 전 주기에 맞춘 지원을

또 벽지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으로 의료접근성이 낮고 출산 후 보험 가입 과 의료비 부담에 어려움이 컸던 현실 을 고려해 의료비 위험을 선제적으로 보장하는 부안형 태아보험을 핵심 특

담고 있다.

부안형 태아보험 지원사업은 군에 주 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태아특약이 포 함된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 료의 80%를 월 10만원 한도로 지원하 며 지원 기간은 보험 가입일(태아)부터

출생 후 12개월까지로 최대 1년 10개 월이다.

가입자는 필요에 따라 보장 항목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 개인별로 실용적인 보장 구성이 가능하다.

군은 임신·출산 가정의 실질적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예방접종·산후조리 비・건강관리 지원과 연계해 보다 촘촘 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만들어가겠다 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군은 임신 계획 단계부터 출산·산후 회복까지 시기별 맞춤 지원 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임신· 출산을 준비 중이라면 부안으로 전입 하길 권하며 이사(전입) 예정 가정을 위한 사전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해 '상 담→전입→신청'이라는 최적의 일정을 제시할 계획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죽산삶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제5호 지정…골목상권 활기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역 소 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속도를 내며, 최근 죽산면 일대 '죽산삶거리 골목형 상점가'를 김제시 제5호 골목형 상 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죽산삶거리 골목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형 상점가'는 음식점, 슈퍼 등 기존 상권과 공방, 생활소품점 등 신규 상권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지역으 로, 총 30개의 점포가 골목상권 활 고 밝혔다.

성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자발적 으로 협력해 지정이 성사됐다.

지정된 상점가에서는 온누리상 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 공모사업 참여 및 상권 활성화 지원 등 다양 한 혜택이 제공되며, 소비자는 온누 리상품권 사용 시 10%의 할인 혜택 과 함께 사용 금액의 40%에 대한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지 정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과 지역경 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 /김제=온봉기 기자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 성황 속 마무리

12만1천여명 방문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의 붉은노을과 함께한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가 지 난 26일 성황리 막을 내렸다.

1천여명의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추억

이번에 주무대 인근으로 자리를 옮긴 '레드와인페스타'는 노을을 볼 수 있는 공간배치를 통해 와인장을 찾은 방문 객들에게 노을과 와인이라는 붉은노을 축제의 컨셉을 제대로 전달했다.

'붉은노을 재즈 페스티벌'은 국내에 서 활동중인 재즈 뮤지션들이 감미로 운 선율에 맞춰 다양한 곡을 선보여 변

산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들에게 편안 한 분위기 속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감성적인 축제장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제3회 부안붉은노을 어린이 동 요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어린이들 이번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는 12만 의 싱그러운 목소리가 변산해수욕장을 가득 매워 남녀노소가 모두 즐길 수 있 는 죽제임을 확인했다.

김종문 부안군 대표축제 추진위원장 은 "이번 2025 부안붉은노을축제는 와 인, 재즈 그리고 붉은노을이라는 주제 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 에게 새로운 추억을 선물했다"며 "부안 붉은노을축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 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군민활력지원금·소비쿠폰 마감 임박

31일까지…미신청 군민 신청 지원 막바지 총력

고창군이 '군민활력지원금'과 '민생회 복 소비쿠폰' 2차 신청 마감일(31일)이 임박하면서 "기한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10월 22일 기준으로 군 민활력지원금은 전체 지급 대상 5만 이 불편한 주민 등 취약계층을 위한 '찾 646명 중 4만8777명(96.4%)에게 지급 이 완료돼 총 97억 5500만원이 지급됐

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급 대 해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 마을 및 상 4만8379명 중 4만6898명(96.9%)에 관계기관과 협력해 미신청 가구를 확 게 지급이 완료돼 총 46억8900만원이 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유도하고 지급된 것으로 십계됐다.

군은 신청 마감까지 모든 군민이 혜 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등 현장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은 고령자, 장애인, 거동 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장 기요양시설과 경로당 등을 직접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는 "활력지원금은 군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 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다"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군민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마 지막까지 현장 중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치매 어르신 돌봄 공백 최소화 나서 권익현 부안군수 "재생에너지 선도 대응 총력" 당부

겨울철 난방기 화재예방 농가 피해지원 등 강조도

권익현 부안군수는 27일 10월 중 연 석회의를 열고 정부의 해상풍력 육성 정책 대응, 2026년도 국가예산안 국회 단계 확보, 취약계층 화재가을장마 피 해 대응 등 주요 군정 현안에 대해 전 부서의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권 군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 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추 진하고 해상풍력을 국가 성장동력으 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군의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그린수소 산업 추진이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 정책 기조를 면밀히 분석해 부안형 재생에너지 모델이 구 체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 라"고 주문했다.

회는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 입한다."며 "사전 행정절차가 미비한 사업별 행정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에 도움이 되도록 11월 중 지급 될 공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기 사용 증 가에 따른 화재 위험이 커지는 점을 언 급하며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 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 기·가스시설 안전 점검과 소방용품 보 이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국 급을 확대하고, 읍·면 단위에서는 화재 기와 경기 침체 속에서도 행정의 신속 예방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가을장마로 인한 농작물 사업은 증액이 어려운 만큼, 전 부서가 피해 확산과 관련해 "피해 조사와 방제 지도를 철저히 하고, 농업인 경영 안정

익직불금이 누락 없이 지급될 수 있도 록 사전 행정 처리를 철저히 이행해 달 라"며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의 생계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 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권 군수는 끝으로 "지속적인 기후 위 한 대응과 부서 간 협업이 군정의 경쟁 력"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 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적 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덧붙였다.

/부안=신상수 기자

찿아가는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고창군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고 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며 돌봄 공백 최소화에 힘쓰고

치매환자의 개인별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긴급, 중점, 일반 관리가 필요한 지대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후 간호사와 사 다.

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접근해 치매 문제행동에 대한 안정화를 돕게 된다.

특히 선정된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 위험 치매 어르신들에게 '1대1일 맞 한 장·단기 개입 목표를 설정하고, 구 체적인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한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돌봄 취야계층 치매어르 고창군보건소는 사례회의를 통해 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맞 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치매돌봄 사각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초등학생 대상 전국대회 11월 막 올려

끝을 함께한다.

먼저 오는 11월 1일부터 7일까지 7 겨루기 대회로 진행된다. 일간 '2025 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 서 개최된다.

일간은 '제5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 강전 전국초등학교태권도대회'가 김 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4년간 김제에서 열리는 이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초등학생 대 대회는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이 상 전국대회 개최로 11월의 시작과 주최·주관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대회로 2일간은 품새대회를, 3일간은

정성주 김제시장은 "우리나라 체육 수권대회(초등)'가 김제실내체육관에 의 미래를 이끌어갈 꿈나무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그동안 흘린 땀 또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5 방울이 결실을 맺는 대회가 되길 희 망하고, 김제시에서도 꿈나무 선수들 이 맘껏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 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선운산, 단풍·코스모스 어우러진 '힐링 명소' 인기

가을이 깊어지는 이 시기, 울긋불긋 단풍 으로 물든 선운산이 방문객들의 발길을 기 다리고 있다.

특히 선운산 도솔천 산책길은 11월 12일 까지 짙은 단풍과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져 방문객들에게 자연이 전하는 감동을 전한

도솔폭포에 도착하면 폭포수가 떨어지 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주변 단풍이 빚어내 는 아름다운 풍경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 로잡는다. 또한 도솔폭포 바로 옆에 만개한 코스모스 꽃밭에서는 가을바람에 살랑이는 코스모스가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사진 애호가, 자연 속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선운산은 가 을 여행지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고창군 선운산공원팀 관계자는 "선운산 은 사계절 내내 아름답지만, 특히 가을 단 풍과 코스모스가 어우러지는 이 시기는 가 을 풍경을 즐기려는 관광객에게 최적의 장 소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 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방문 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검사관 간담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27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북지원 부안사무소에서 검사 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2025년 공공비축미 수매를 앞두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본격적인 수매를 앞두고 품질검사에 참여하는 검사관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검사 추진과 더 불어 수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부안군수, 경제산업국 장, 농업정책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안사무소장, 검사관 등 10여 명이 참석해 △병해 피해 농가 지원 방안 △수매 일정 및 품질관리 대책 △검사 과정의 애로사항 △수매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폭 넓게 논의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올해는 잦은 강우와 깨씨무늬병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크다" 며 "피해 벼가 검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 지 않도록 농관원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매장에서는 작업자 안전이 최우 선"이라며,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사 고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제9회고창모양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호응'

고창문화원이 지난 25일 고창문화의전당 에서 '제9회 고창 모양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가졌다.

정기연주회는 '환희의 송가'(베토벤 교향 곡 9번 '합창' 4악장), 위풍당당 행진곡 등 6 곡과 함께 다채로운 음악을 선보여 관객들 의 뜨거운 박수 세례를 받았다.

고창 모양청소년 오케스트라는 고창군 소재 초등학생(3학년~6학년) 60여 명이 현 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13개 파트의 악기 를 주 2회씩 연습해왔다.

학생들은 오케스트라 단원 활동을 하면 서 해마다 재능기부 연주회, 교류 연주회, 정기연주회 등을 통해 음악적 성장을 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아름다운 화음을 만 들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학생들 과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단원 들이 그려나가는 선율은 곧 고창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노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 다.

/고창=백종규 기자

순창사랑상품권 20% 할인 지역상권 활력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참여 14억 발행 결제 시 20% 캐시백 내수촉진·소상공인에실질도움

순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동참한다. 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순

조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정부의 행사인 '코리아 그 이었던 15% 캐시백을 적용한다. 랜드 페스티벌'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창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20%로 상향

물관 무료 개방을 비롯해 교통·숙박·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축제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 누리집 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순창군은 행사기간 중 14 이번 행사 참여에 맞춰 군은 오는 10 억원을 발행하며 발행액 소진 시까지 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 월 150만원 결제 한도 내에서 결제금액 의 20% 캐시백을 제공한다. 14억원의 발행액이 전액 소진되면 당초 할인율

단, 지류상품권(1만원권)은 부정유통

정부가 주도하는 소비 축제로 10개 부 방지를 위해 판매를 중단해 모바일·카 처와 3만개 유통사가 참여하며 국립박 드 상품권만 구입할 수 있다. 모바일 상 품권은 지역상품권(CHAK)어플 다운 로드 및 회원가입 후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 상품권은 은행 방문 후 구입이 가 능하다.

>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 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 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상공인 모두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 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군, 고산 북부 마을버스 내년 도입 '공영제 완성'

군 전역 공영제 확대 마지막 단계 500원요금·맞춤시간표등제공

완주군이 지역 여건에 맞는 독자적・ 효율적 대중교통 체계 구축에 속도를 단계다. 내고 있다.

영 '완주형 마을버스'를 고산북부 지역 에 본격 투입해 기존 시내버스를 대체・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전주시와의 지·간선제 노선 개 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 과 △2021년 이서 △2022년 소양·구 이다.

이·상관·동상 △2024년 삼례 △2025년 7월 봉동·용진 지역에 총 30대의 마을 버스를 도입했다. 이번 고산북부 지역

군은 차량 구입, 운전원 채용, 노선 설 군은 2026년 상반기부터 완주군 직 계 등 마을버스 도입을 위한 준비를 진 행하고 있으며, 고산북부 지역에 버스 할 것으로 보인다. 공영제가 시행되면 현재 1,700원인 요 금이 500원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군 전역에서 완전 공영제 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 기반의 시내버스 체계가 완성될 전망

마을버스가 도입되면 △친절 서비스 강화 △이용자 맞춤형 시간표 운영 △ 정시성 확보 △교통비 절감 등 군민 체 도입은 전 지역 공영제 확대의 마지막 감형 긍정 효과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 개선과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에 기여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산북부 지역 마을버스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군 주형 대중교통 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청소년 디지털 인재 해외탐방 본격 발대

'디지털리더스클럽' 싱가포르 탐방 SW·AI 교육 수료 우수학생 선발

남원시는 지난 24일 '디지털리더스 클럽 해외탐방 발대식'을 개최했다. '디 지털리더스클럽'은 SW개발에 소질과 흥미가 있는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 로 SW/IT분야 엘리트 교육을 진행하 는 남원시 지역특화프로그램이다. 이 번 발대식은 글로벌 IT 현장을 직접 체 험할 학생들의 첫 공식 일정으로 참가 자들은 탐방의 취지와 일정을 공유하 며 해외탐방에 임하는 각오를 다졌다.

이번 해외탐방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6월 모집공고 이후 8월 군산대학교에 했으며, 학생들이 이전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미 서 열린 부트캠프와 SW미래채움 전북 센터에서 진행된 심화교육을 거쳐 선 시간도 마련됐다. 발된 우수 수료생 12명이다. 학생들은 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왔다.

방 일정, 안전수칙, 유의사항 등을 안내 다. 이번 해외탐방은 학생들이 글로벌



남원시는 SW/IT 우수인재 초·중등생 12명을 선발하고 지난 24일 '디지털리더스클럽 해 외탐방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남원시>

제작한 프로젝트 결과물을 전시하는 래 기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성

이어 진행된 시장과의 대담 시간에 개발청 산하 도시개발청(URA) 방문, 부트캠프와 심화교육을 통해 파이썬, 는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과 미래 진로 NUS·ITE·SUSS 등 국립대학 IT 관련 게임 개발, 아두이노 기반 IoT 등 실무 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며 소통 학과 견학, AI·로봇공학·VR·AR·드론 중심의 SW·AI 기술을 학습하며 창의 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가 학 등 첨단 에듀테크 현장 체험, 그리고 현 생들은 오는 11월 3일부터 9일까지 5 지 기업의 자동화 생산공정 탐방 등이 행사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탐 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한 포함된다.

됐다. 주요 일정으로는 싱가포르 국토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의료·돌봄 통합모델 구축 속도낸다

내년 통합돌봄지원법 시행 앞두고 민간 협력 간담회…선제적 대응

완주군이 2026년 통합돌봄지원법 시 행에 앞서 지역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 모델 구축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완주군 보건소 에서 민·관 협력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원용 고산성모의원장, 임 평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 안정현 구이노인복지센터장, 김정은 노인일자 리 수행기관 양지뜰 대표, 국민건강보 험공단 북부지사, 완주군 보건소, 사회 해 활발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는 2026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제를 집중 논의했다. 통합돌봄지원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됐다.



완주군은 최근 지역 맞춤형 의료돌봄 통합모델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 간담회를 열고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완주군>

지원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대상 지자 을 모았다. 복지과, 건축과, 경로장애인과 등 지역 체로 지정돼 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 의료·복지·요양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는 시범사업 경험 공유와 본사업 전환 에 대비한 서비스 연계 및 제도 보완 과 와 복지, 요양서비스 간의 긴밀한 협력

완주형 의료·돌봄 통합지원체계 구축 스 간 협력 체계 강화, 돌봄 공백 해소 화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과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마련 를 위한 민·관 연계 방안,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의견 겠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되는 '기술 을 공유하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에 뜻

김미숙 완주군 경로장애인과장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으로 지역 의료 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완주 또한 의료·요양·돌봄 등 다양한 서비 군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체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위촉식을 열었다.

남원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위촉

복지·돌봄 유기적 연계 협력 시민 체감 통합돌봄 강화

시청 2층 회의실에서 '남원시 지역 사회 통합돌봄 협의체 위촉식'을 개최했다.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및 자 문기구로,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8 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앞으 관 간 연계·협력 등 분야에서 심의 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촉장 수여 △기념사진 촬영 △ 위원장 인사말 △부위원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남원시는 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지역의 복지자원과 돌봄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남원시는 27일 오후 1시 30분,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통합 돌봄체계를 본격 추진한다.

현재 남원시는 '2025년 의료-요 양 통합돌봄 시범사업'과 '장기요 이번 협의체는 지역사회 중심의 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공모 에 모두 선정돼 두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남원시의 장기요양등급 로 통합돌봄 지역계획의 수립과 자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대 평가, 통합지원 시책 추진, 관련 기 상자 3,304명 대상 전수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 스는 의료 접근성 강화인 것으로 이날 위촉식은 △위원 소개 △ 나타났다. 이에 시는 '방문진료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병원동 행 서비스'를 기획·시범 운영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취약자 안전 강화

마방길 등 6개소 시설물 설치 신규 대상지 지정고시 변경 추진

남원시는 마방길 등 6개소에 보행 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신 규 대상지 지정을 위한 지정고시 변 경과 국비 공모사업 대응을 적극 추 내표지 등 시설물이 설치돼 보행자의 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보행자와 차량의 구분이 없어 안전 사고 위험이 높았던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개선을 본격 추진하 고 있다.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기 어 운전자에게 보행자 우선의 안전 의식 비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한다. 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남원시는 2023년 1월 지정·고시된 22개 보행자 우선도로 구간 중 6개소 (마방길, 하정2길, 시청남로, 시청동 로, 옥샘길, 동부시장길)를 먼저 정비 완료했으며, 해당 구간에는 보행차도 (블럭), 속도저감시설, 안전표지판, 안 안전과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또한 시는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기 준'에 따라 내년에 부적절하게 지정 된 구간을 재정비하고 지정고시를 변 경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계획 변경 려운 좁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차량 용역을 통해 특별교부세 확보 등 국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여성안심귀갓길' 완료…도로표지병 개선

소비자교육중앙회 순창군지회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일환

장 정명자)는 최근 양성평등기금 공 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여성안심 24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로표지병은 야간 조명이 없는 도 다. 로변에 설치하는 태양광 매립등으로, 어두운 골목이나 외진 길목의 주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성평등 안 불안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 전 환경 조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 되는 안전 시설물이다.

이번 정비사업에서 소비자교육중앙 회 순창군지회는 순창군과 협력해 현 장 실태조사 및 야간 점검을 통해 개 소비자교육중앙회 순창군지회(회 선이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점검했다. 이후 여성들의 체감 안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창읍 순창로 귀갓길 도로표지병 정비사업을 지난 226-2에서 순창10길 22까지의 구간 을 우선 선정해 도로표지병을 교체했

> 정명자 회장은 "여성과 주민 모두가 라고 밝혔다. /순창=박지헌 기자

최광호 의원 "완주 드라이브인 페스타 안전관리 부실"

최 의원 "5억 세금 투입 행사 기본 안전조치도 없어" 질타

일부터 19일까지 완주군 둔산공원 일 원에서 열린 '완주군 드라이브인 페스 태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 행사의 안전관리 부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둔산공원 일원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 테이프만 설치돼 있었다. 는 완주군이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것으로 대행업체의 부실 시공 과 완주군청·완주문화재단의 관리· 논란이 되고 있다.

'드라이브인 페스타'로 3일간 진행

된 행사는 곳곳에서 배전반이 주요 통로 인근에 설치돼 군민이 감전 위 험에 노출됐고, 발전차 주변에는 안전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이 지난 17 휀스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는 등 기 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

또한 행사장 바닥은 비로 젖어 미끄 럼 사고 위험이 있었다. 발전차 주변 지난 17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도 안전 휀스 없이 나무가지와 경고

현장을 직접 확인한 최광호 의원은 "행사 대행업체가 기본적인 안전 기 준도 무시했고 이를 방치한 완주군청 감독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이 과 완주문화재단 역시 명백한 관리・ 감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K-POP·리듬 댄스 접목 유아 건강 댄스 교실 운영

순창군이 유아기 올바른 신체활동 습관 형성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신 나는 유아 건강 댄스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6~7세 유아를 대 상으로, 10월 27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 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 터 5시까지 해피니스센터 교육실에서 진행

수업은 유아의 신체 발달 단계에 맞춰 구 성된 △기초체력 향상을 위한 건강체조 △ 유연성을 키우는 스트레칭 △균형감각과 협응력 향상을 위한 밸런스 운동 △리듬감 발달을 돕는 율동 등 다양한 신체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K-POP 음악과 리듬 댄스를 접목하여 흥미와 참여 도를 높이고, 놀이처럼 즐기며 자연스럽게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 한다. 또한 음악을 통한 표현력 향상, 자신 감 및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

관계자는 "영·유아기의 신체활동은 단순 한 놀이를 넘어 성장과 두뇌 발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영·유아 성장단계에 맞춘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 램을 지속 운영해, 아이가 웃고 가족이 행 복한 순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시 2025 수어문화제 개최 다양한 수어 체험 기회 제공

남원시는 지난 25일 예촌 마당에서 농아 인, 가족, 시민과 함께하는 "제5회 남원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했다.

수어문화제는 농인과 건청인이 어우러져 함께 즐기며 수어와 농인에 대한 이해를 높 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

특히, 수어체험 부스를 통해 시민들이 수 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인 과 건청인 5개 팀이 수어 경연대회를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수어로 경연을 펼치는 등 다양한 수어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남원시는 한 주간의 시정소식을 수어와 사진, 자막 등으로 구성된 수어 홍보 동영 상 서비스를 제작해 매주 목요일 시 홈페이 지와 남원시 TV, SNS를 통해 제공하여 청 각장애인의 원활한 시정정보 접근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수어문화제를 통해 '수어로 마음을 나누다'를 주제로 농 인과 건청인이 함께 소통하는 한편, 시민의 수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더불어 사 는 남원이 되기를 바란다며, 청각·언어 장 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초동 대응 체계 강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완주군이 가을철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 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가을철 산불방 지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갔다.

군은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취약지역 중심 으로 배치한다. 또한 산불진화차량 13대와 주요 진화장비를 가동해 산불 조기 발견과 초동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완주군은 주요 등산로 입구와 산림 인접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방송 및 계도활동 등을 병행해 군민들의 경각심 을 높이고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불법 소각을 절대 삼 가 주시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 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무주군, 2025 인문 주간 개막 '인문학으로 지역과 공동체 잇다'

무주군은 27일 무주상상반디숲에서 인문 주간 개막행사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2025년 인문도시 지원사업' 의 일환으로,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와 함께 마련했으며, "다시, 잇다 - 인문학으 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를 주제로 △창공 밴드와 MJ문화예술단 공연,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감독 초청 강연 등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에 따르면 인문 주간은 오는 11월 2일까지 이어지며, 무주상상반디숲을 비롯 해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덕유산국 립공원사무소, 김환태문학관 등지에서 '무 주의 자연과 생태, 공동체 문화'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특히, 자연특별시 무주군의 생태환경을 활용한 음식 만들기 체험, 생태 탐방, 지역 예술 체험 등의 참여형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2025년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개최

임실군이 지난 24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재정의 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회를 개최했다.

앞서 군은 지난 9월에 주민참여예산 제 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 주 민의 의견이 예산 편성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참여예산위원의 역할 및 운영 활성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역복지분 과와 농촌산업분과 2개 분과로 나뉘어져 개최됐으며, 각 지역복지분과 13개, 농촌산 업분과 12개 소관부서 부서장 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 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면서 심도 있는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제 안된 사업들은 사업 부서의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2026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제3회 모두다함께! 다어울림 명랑운동회' 개최

장수군은 지난 25일 한누리전당 산디관 에서 장수군가족센터(센터장 홍선희) 주관 으로 '제3회 모두다함께! 다어울림 명랑운 동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랑운동회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과 화 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역주 민 3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 속에 진 행됐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줄다리기 등 흥미 로운 경기와 협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가 족 간 유대감은 물론 세대 간 활발한 소통 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장 한편에는 포토존이 마련돼 참여 가족들이 웃음과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으 며, 다양한 배경과 소품이 준비된 포토존은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또한 팔찌공예 체험 부스도 운영되어 가 족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며 의미 있는 시간 을 보냈다.

참가 가족들은 "아이와 함께 뛰고 웃는 시간이 매우 소중했다"며 "이런 가족 중심 의 행사가 자주 열려 다양한 가족이 서로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 다.

/장수=최진수 기자

반려견과 함께하는 '임실 펫투어' 운영

옥정호·치즈테마파크등 대표 관광지 연계 운영

임실군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 한 여행 프로그램인 '임실 펫투어'를 선 보이며,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펫투어 프로그램은 반려 가구 증가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 수요에 대응하고, 오수의견관광지와 군 대표 관광지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 화를 도모하기 위해 우석대학교 RISE 사업단과 협업해 추진됐다.

지난 24일 진행된 첫 번째 임실 펫투 어는 △옥정호 출렁다리 △붕어섬 생 태공원 △오수의견관광지 등 임실의 대표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구성돼, 반 려동물과 함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힐링 코스로 큰 호응을 얻었다.

처음 진행된 임실 펫투어 참가자들은 관광버스를 함께 타고, 반려견과 함께 꽃길을 걷고, 출렁다리를 건너며, 사진 도 찍으면서 가을 정취를 즐기는 등 잊 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이어 오는 31일에는 두 번째 임실 펫 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이번 코스는 천만송이 국화꽃이 만발 려동물 전문 여행가이드'펫가이더'가



임실군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프로그램인 '임실 펫투어'를 선보이며, 반 려동물 친화 관광도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오수의견 관광지로 구성돼 있다.

오수의견관광지는 '의견(義犬)의 전 설'을 간직한 역사적 명소로 반려동물 과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인 공간이다.

넓은 반려동물 전용 잔디광장과 조형 물, 휴게공간이 잘 조성돼 있어 반려견 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지로 손꼽힌다.

이번 투어는 반려견 안전벨트가 제공 되는 반려동물 전용 버스로 운행되며, 전문 사진작가와 안전관리를 위한 반 다"고 말했다.

동행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돕는 다.

자세한 내용은 펫츠고 트래블 홈페이 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 민 군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 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 번 투어를 통해 임실의 아름다운 자연 과 문화가 더욱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귀뚜라미문화재단 장학금 수여

총5천만원장학금전달

장수군은 지난 24일 군청 군민회 관에서 '2025년 귀뚜라미문화재단 장수군 모범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귀뚜라미그룹과 장 수군이 함께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 을 격려하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내 중·고등학생 50명에 게 총 5천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 서가 전달됐다.

귀뚜라미문화재단은 기업의 사 고전했다. 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교육 발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 지원 또한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높이고, 지역 교육 발 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장 수지역 학생들이 이번 장학금을 통 해 학업에 전념하고, 지역과 국가를 이끄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 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무주형 기본소득 추진 의지 표명

전담팀구성·행정절차이행계획

무주군이 27일 '무주형 기본소득' 추 진 의지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기 자들을 만난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 가 정부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포함되 지 않아 안타까운 게 솔직한 심정이지 만, 침체 일로에 있는 무주지역 활성화 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라며 "앞으로 전담팀 을 구성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정비, 관련 부처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을 마치는 대로 무주형 기본소득을 지 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무주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경 제적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규제를 묵 묵히 감수해 온 세월에 대한 보상이자 지속 가능한 무주의 미래를 여는 마중 물이요, 군민들에게는 기본소득만큼의 여유를 불어넣고 지역에는 활기를 채 우는 사회보장제도"라며 "무엇보다 무 주사랑상품권 지급을 통해 환류되는 선순환의 토대 위에서 '무주다운 무주,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복한 군민' 실현을 실감할 수 있는 농

촌형 기본소득의 선도 모델을 만들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를 딛고 일어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 어 가는 것, 모든 삶이 안전망을 보장하 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무주형 기본소득이 우 리 군에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생활의 기본이 보장되는 '무주형 기본사회' 구 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총력'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진안군은 날로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 는 11월 30일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운영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 혔다.

단을 편성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관리를 추진하며 물가상승 등으로 경 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및 체 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 납처분유예를 통해 회생 기회를 제공 함과 동시에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현장 행정을 강화 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압류·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25년 하반기에는 토지, 건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기간 인 만큼 해당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 군은 일제정리 기간 동안 징수추진 인 부동산 압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 다. 체납세금은 △전국 은행 현금자동 인출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 △군세입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좌로 납부하면 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 완료

IoT 기반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 스마트헬스케어서비스제공

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IoT(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전동보장구 안전서비스 제공과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 스마트 헬스케 어 구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전동보장 추진될 예정이다. 구 이용자의 이동 안전 확보를 위해 전

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 넘어짐, 급가속, 급정지 등 이상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확인 및 대응이 임실군이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복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 향상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 에 차단하고 긴급 상황에 골든타임 내 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27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망을 완성 했다.

이번 서비스는 임실군 전 읍·면 12곳 을 대상으로 시범 구축 후 운영 안정화 다. 과정을 거쳐 완료됐으며, 향후 이용자 확대와 서비스 고도화가 단계적으로

동보장구에 IoT 센서를 부착하고, 이상 스케어 장비를 설치하여 어르신과 지 있다. 움직임을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 실 역 주민 누구나 쉽게 건강 상태를 스스

련했다.

키오스크에 연동된 측정 장비를 통해 혈압, 체성분, 자율신경 등 다양한 건강 데이터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 스템이다.

측정 결과는 키오스크를 통해 주민이 직접 방문해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

이 서비스를 통해 고령 인구가 많 은 농촌 지역의 디지털 접근성과 건강관 리 인프라를 확대하고, 디지털 소외 없 또한, 읍·면사무소 12곳에 스마트 헬 는 보편적 건강 복지 실현을 이뤄가고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과 영·호남 연계 강화를 위한 국가 도 통과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망 확충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2026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 구 고속도로는 영·호남을 직접 연결하 울이고 있다.

량 사업 등 핵심 현안 사업의 필요성 했다. 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원 을 요청했다.

업 및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 37 사 통과 명분으로 내세웠다. 호) 2차로 개량 사업의 '제6차 국도·국

무주군이 지역 교통 접근성 향상 지도 건설계획'일괄 예비타당성조사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성주~대 는 핵심 노선으로, 동서축 교통망 확충 황인홍 무주군수와 건설·환경 분야 을 위해 건설이 추진이 시급하다"라며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27일 기획재정 "이 사업을 통해 국토 균형 발전과 지 부 재정관리국장과 경제예산심의관, 역 간 교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 사회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무주~대 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 구 간 고속도로 건설, △국도 2차로 개 사 대상 사업에 포함해 줄 것"을 강조

이어 국도 30호선인 무풍~김천 대덕 구간은 교통안전 확보가 시급하며, 국 이 자리에서 무주군은 △무주~성주 도 37호선인 설천 심곡~두길 구간은 ~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비타당 구천동 관광특구의 진출입로로서 관 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무주 무풍~ 광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 김천 대덕(국도 30호) 2차로 개량 사 요한 구간이라는 점을 예비타당성조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홍삼'과 함께하는 동아시아 U12 축구 교류전 개최

청정 자연환경 진안서 키우는 꿈

진안군은 스포츠 교류와 지역특산품 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홍보의 다양화를 위해 여형 홍보 전략의 일환으로 지난 24일 ~26일까지 3일간 '진안홍삼과 함께하 는 동아시아 U12 축구 교류전'을 추진

U12(초등부)팀과 중국 베이징을 연고 축한다는 계획이다. 로 6,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하이키 커FC가 참가해 도내 및 전국 최강 유소 기장 또한 참가자들로부터 우수한 시 덧붙였다. 년 클럽 총 8개 팀이 자웅을 겨뤘다.

역경제와 연계한 부스를 운영해 참가자 험·구매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축구 인플루언서와 협업해 유 뒀다. 스포츠·관광·홍삼 산업을 연계한 참 튜브와 전북현대 유스팀 공식 SNS 채 널 등에도 동시 홍보를 추진해 진안홍 삼의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다.

삼 산업의 소비층을 청소년 및 가족단 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 이번 대회는 진안홍삼클러스터사 위로 확대하고, 건강·에너지·활력이라 업단이 후원하고 전북스포츠산업지 는 홍삼의 이미지와 스포츠를 결합해 원센터가 주최했으며 전북현대 산하 젊고 역동적인 진안홍삼 브랜드를 구

설과 체계적인 잔디 관리로 호평을 받

대회 기간 동안 경기장 일원에서는 홍 았다. 더불어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팀과 삼 홍보존,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 지 가족, 관람객 등 400여명은 숙박·식사· 관광을 함께 즐기면서 체류형 관광 소 홍보를 결합한 체류형 마케팅으로 지 의 방문객이 진안홍삼 제품을 직접 체 비 증대와 마이산북부 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동아시아 유소년 축구 교류전은 진안홍삼과 스 포츠가 결합된 새로운 지역 상생 모델" 진안군은 이번 교류전을 계기삼아 홍 이라며, "단순한 대회를 넘어, 진안홍삼 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홍삼·관광·스포츠가 함께 어우러지는 체류형 마케팅을 강 화해 진안을 아시아가 주목하는 홍삼 경기가 진행된 성수면 천연 잔디 경 산업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노후 옥내급수관지원사업 완료

진안군이 2025년도 노후 옥내급수 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사업 관 개선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 을 추진했다. 리하며,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으로 인한 녹물 발생과 수질 저하 문 된 주택 $\Delta(3c)$ 2000년 이전 준공 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올 된 주택 등이며, 수질기준을 초과한 주 해 총사업비 1,000만 원을 투입해 세 택은 우선 지원하고 있다. 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며 5세대 의 옥내급수관을 교체 완료했다.

의 최종 공급 구간으로, 아무리 정수된 사를 추진 중이며, 향후 지속적인 현장 수돗물이라도 배관이 낡으면 녹물과 방문을 통해 대상 세대를 추가 발굴하 이물질이 섞여 위생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의 건

지원 대상은 △(1순위) 기초생활수 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택 △(2순위)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옥내 급수관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

군은 올해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을 20세대로 확 특히 옥내급수관은 가정 내 수돗물 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차 사전 조 고 지원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2025년 10월 28일 화요일



정읍 내장상동, '행복나눔 텃밭' 고구마 550kg 수확

정읍시 내장상동(동장 박은주)이 지난 22일 '행복나눔 텃밭'에서 수확한 고구마 550kg을 나누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내장상동 통장협의회(회장 최경렬)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회원·주민센터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나눔을 위한 통장협의 회 특화사업 중 하나로, 이날 쌍암동 일원 150 평 밭에서 총 550kg(110박스)의 고구마를 수 확했다. 수확한 고구마는 관내 37개소 경로당・ 공유냉장고를 통해 저소득계층에게 전달됐다.

최경렬 회장은 "이번 나눔 활동이 어려움을 겪는 이웃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주변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해 관 심을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을 꾸준히 이어가 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남원시, 월남참전기념비·위령비· 무공수훈자전공비 제막식 개최

남원시는 27일 오전 10시, 교룡산 국민관광 단지 내에서 '월남참전기념비, 위령비, 호국무 공수훈자전공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는 월남참전유공자회(회장 박준 회), 고엽제전우회(회장 성경용), 무공수훈자회 (회장 권영갑) 공동 주관으로 열렸으며, 시장 과 시의회 의장, 전북동부보훈지청장, 기관장 보훈단체,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제막식은 경과보고, 기념비 제막, 대회사, 조 총 발사, 추모 제사, 헌화 및 분향의 순서로 진 행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단장된 위령비와 호 국무공수훈자전공비는 2023년 교룡산성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보수 및 이전 설치를 마쳤으 며, 월남참전기념비는 2024년 명각 보완 작업 을 실시하여 보다 온전한 모습으로 시민 곁에 다시 세워졌다.

이번 제막식 행사는 참전용사와 무공수훈자 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과 공 헌을 시민과 후손의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하 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산특전사동지회, 26년째 이어온 연탄 나눔 활동

취약계층에 연탄 3천장 지원 져 온 지역대표 나눔 봉사활동으 "올겨울함께따뜻하게"

장 오성권)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눔 봉사활동'을 펼쳐 주위의 귀감 리잡았다. 이 되고 있다.

원들은 직접 모금한 성금으로 군 로 이웃들이 올겨울을 따뜻하게 산시 삼학동, 명산동, 미원동 등 1 보내시길 바란다."라며 "우리 회원 가구당 300장씩, 총 10가구에 3천 들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장 (24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군산특전사동지회의 연탄 나눔 감을 밝혔다. 은 1999년부터 매년 꾸준히 이어

로, 올해로 26년째를 맞았다.

특히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 사단법인 군산특전사동지회(회 어, 구성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진 짜 나눔'을 실천해와 이웃사랑과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 '연탄나 나눔을 실천해온 모범 사례로 자

오성권 회장은 "특전사 선후배 지난 26일 군산특전사동지회 회 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연탄으 나눔 실천에 앞장서겠다"라고 소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산림조합, 나무심기 성금 2,000만원 기탁

푸른익산 가꾸기 동참

익산시는 익산산림조합이 녹색정 원도시 익산 만들기에 동참하기 위 해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익산산림조합이 (새)푸른익산가꾸 기운동본부에 기탁한 2,000만 원은 있는 푸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나무 식 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세먼지 재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익산산림조합은 2021년부터 불우 무심기 운동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웃 돕기, 나눔곳간 기부, 코로나19 및 수해복구 지원 등 꾸준한 사회공

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수성 익산산림조합장은 "녹색 정원도시 익산을 만드는 데 힘을 보 태고자 성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조성에 도 움이 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삶이 책이 되다' 완주 동상면 어르신 자서전 펴내

김춘이 선생님 '다섯 손가락' - 나를 찾는 춘이 쓰다.

배성환 선생님 '배성환 인생길' 육남매

완주군 동상생활문화센터(센터 트로, 지역 주민들의 삶과 경험을 장 유경태)가 지역 어르신들의 자 서전 '인생노트' 출판기념회를 개 중한 문화자산으로 남기는 사업이 최했다.

리 원신마을 김춘이, 사봉리 묵계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마을 배성환 어르신의 자서전 발 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가족과 존감 회복 △정서·정신적 복지 증 지역 주민 등 약 30명이 참석해 두 진 Δ 세대 간 공감·소통 확대 Δ 분의 출간을 축하했다.

'인생노트'는 동상생활문화센터 를 기대하고 있다. 가 추진하는 자서전 발간 프로젝

기록해 개인의 생애를 지역의 소 다. 두 어르신의 이야기는 동상면 이번 출판기념회는 동상면 신월 의 역사와 생활문화를 담아냈다는

> 센터는 이번 발간을 통해 △자 지역 문화기록화 등 다양한 효과

> > /완주=김명곤 기자

마이산탑사갑룡장학회,장학금900만원기탁

진안군 자원봉사자 가족의 자녀 용장학회는 자원봉사자와 그 가족 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전 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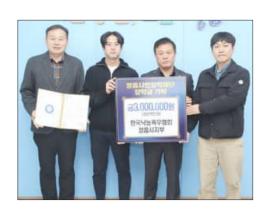
마이산탑사갑룡장학회는 27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이어가겠다" 진안 문화의 집에서 제12회 마이 고 밝혔다. 산탑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을 열고, 지역 자원봉사자 자녀 및 학금을 전달했다.

줄고 있지만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분들은 꾸준히 늘고 있다"며 "갑

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 로도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전춘성 진안군수는 "30년 동안 이어져 온 갑룡장학회의 장학사업 손자녀 28명에게 총 900만원의 장 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나눔이 만 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장 진성 스님은 "진안군의 인구는 학생들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

/진안=전길빈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 정읍시지부, 장학금 300만원 기탁

정읍 지역 낙농인들이 미래 인재 육성을 위 해 따뜻한 마음을 모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정읍시지부(회장 이민환)는 27일 (재)정읍시 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을 찾아 장학금 300만원을 전달하며 지역 사회 상생의 의미

이민환 회장은 "정읍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 수 인재들이 보다 나은 교육환경에서 미래를 꿈꾸고 성장하기를 바라며 회원들과 뜻을 모 았다"며 "앞으로도 낙농인이 함께하는 상생의 지역문화를 이어가며, 정읍의 학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응원하겠다"고 말했

이학수 시장은 "지역의 든든한 일꾼인 낙농 인들의 정성·마음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 는 큰 힘이 되고 있다"며 "기탁해주신 뜻을 소 중히 이어받아 지역 인재들이 자긍심을 가지 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 사의 뜻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호림건설 최진호 이사, 부안군에 150만원 기탁

부안군은 지난 23일, 지역 건설업에 종사하 며 부안과 인연을 이어온 호림건설 최진호 이 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150만 원을 기탁했다

최 이사는 그동안 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을 가져온 인물로, 이번 기부는 지 역과 함께 성장한 기업인의 책임 있는 나눔 실천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부안군의 청년 주거 지원 및 어르신 복 지사업에 공감하며 기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 려졌다.

최진호 이사는 "작은 정성이지만, 고향을 생 각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의 연 결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부자의 따뜻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더욱 책임감 있게 제도 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실내 화재예방



가스 불 방치 금지



외출 시 가스 밸브 잠금 확인



소화기 배치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一事一言〉



이재명 외교의 거대한 시험장 10월 아펙 정상회의(1)

오태규

언론인

10월은 이재명 정권에게 외교 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집권 기간 내내 관통할 대외정책의 큰 방향과 구도가 이 시기에 정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 제협력체(아펙·APEC) 정상회의 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동 시에 참석합니다. 정치·외교·군 사·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패권 경쟁을 하는 미·중 두 나라 정상이, 트럼프 2기 정권 이후 처 음 대면하는 역사적인 무대입니 다.

이때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를 예약한 '여자 아베' 다카이치 사 나에도 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이용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있 습니다. 이재명 정권으로서는 주 최국의 이점을 살려 한국이 가지 고 있는 외교적 숙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호기입니다.

한 나라가 아무리 좋은 외교 정 책을 세워도 대외관계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는 달 성할 수 없습니다. 상대가 호응하 거나 호응하도록 설득하지 못하 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그래서 10월 경주 아펙 정상회의를 전후 해서 펼쳐지는 외교 무대가 이재 명 정권으로선 매우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권의 외교 정책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입니다. 어느 나 라 어느 정권도 외교를 하면서 국 익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익 중심'이란

용어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합니

그렇다면 실용 외교만 남는데,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 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중국 지 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생각하면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권이 세 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 고 진영과 이념을 앞세운 맹목 외 교를 하는 바람에 국익을 해쳤다 는 반성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그 래서인지 나라 안팎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도 '무엇을 위한 실용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남 습니다. 저는 한반도를 포함한 세 계의 '평화와 번영'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계의 평화 없이 한반도 평화가 없 고, 세계의 번영 없이 한국의 번 영도 없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둘러싼 외교 환 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사성 어를 빌려 표현하면, '사면초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방에 난 관이 널려 있습니다. 가장 최근 에 나타난 난관은 일본입니다. 일 본 안팎의 예상을 깨고 아베 신 조 전 총리보다 더욱 극우적인 다 카이치가, 4일 실시된 자민당 총 재 선거에서 총재로 당선됐습니 다. 그는 각료 시절에도 매년 에 이(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배외주의자입니 다. 심지어 한국과 중국이 야스쿠 니신사 참배를 비판하는 것을 두 고 "도중에 참배를 그만두는 등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니까 상대 가 기어오르는 것"이라는 폭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의 존재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부 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 장하는 '반한 극우 전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 자 유주의 성향의 이시바 시게루 총 리와 100여 일 동안 3차례의 정 상회담을 하면서 쌓아온 대일 실 용 외교의 토대가 다카이치의 출 현으로 여차하면 일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물론 총리가 되기 전과 총리가 된 뒤는 정책이 달라 질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압박이라는 공통의 과제가 있기 에 총재 당선 전처럼 마구 달리지 는 않겠지만 이 대통령이 최악의 일본 상대를 만난 건 분명합니다.

일본보다 더한 위협은 미국입

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달 러(한화, 492조 8700억 원)를 자 기 주머니에 든 돈으로 간주한 채, 관세 협박을 계속하고 있습니 다. 주한미군을 지렛대로 국방비 와 주한미군 주둔비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 도 미국의 요구대로 한다면, 나라 가 거덜 날 내용들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해온 한미동맹 중시, 미국 추수 일변도 외교를 그대로 이어 간다면 어떤 재앙이 초래됐을지 끔찍하기만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대통령은 이 면 합의를 안 하고, 국익에 반하 는 합의는 안 하며, 공정하고 합 리적이 아니면 안 한다는 '3불 정 책'을 천명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자와 얼룩말의 싸움에 서, 한 사람의 지도자 힘으론 감 당할 수 없습니다. 얼룩말 무리

전체가 힘을 합쳐 힘찬 발길질을 해야 겨우 사자의 횡포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마침, 미국 조지아 주에 공장 건설을 해주러 간 한국 파견 노동자 300여 명을 노예처 럼 쇠시슬로 묶어 질질 끌고 가는 미국의 야만 행위를 목격한 시민 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석 연휴 기간에 만난 시골 촌로 들마저 "미국이 우리나라를 마소 취급한다"라고 분개하는 지경입

저는 이런 시민의 각성을, '생활 반미'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까지 광주 학살에 군 동원 용인, 효순·미선 양 압사 사건, 윤금이 씨 살해 사건을 계기로 터진 반미 움직임이 좁은 범위에서 강렬하 게 분출한 일과성 '정치 반미'였 다면, 조지아 사태로 인한 반미는 넓은 범위에서 은근하게 지속되 는 '생활 반미'라고 할 수 있습니

활짝 타오르다 금세 꺼지는 불 꽃보다 은근하게 오래 타는 숯불 이 무서운 법입니다. 이재명 정부 는 정치 반미에서 생활 반미로 변 하는 한국의 민심을 활용해 트럼 프 발 폭풍을 헤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숙의의 결실' 16건, 전북도는 실행으로 응답하라

전북도가 '먹거리 숙의기구'로부터 도 민이 직접 제안한 16건의 정책을 전달 받았다. 이는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도 민이 스스로 지역 먹거리 의제를 발굴하 고 대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거버넌스의 모범이다. 특히 지난 4개월간 다양한 계 층의 도민 70여 명이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만들어낸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 가 크다.

이번 숙의기구의 정책 제안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을 넘어 지역 먹거리 체 계의 지속 가능성과 공공성,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강화를 동시에 고민한 실질 적 대안들이다. '전북산 원물 기반 밀키 트 개발', '공공급식에 지역 농산물 확대 활용', '못난이 농산물 판매처 확충' 등은 모두 현장의 요구에서 출발한 생활 밀착 형 정책들이다. 도민이 직접 겪는 불편 과 지역 농가의 현실을 기반으로 한 제 안이어서 그 실행 가능성은 행정이 만든 탁상공론보다 훨씬 높다.

이제 공은 전북도에 넘어왔다. 도는 숙 의기구에서 전달받은 제안들을 형식적 으로 검토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각 부서별 실질적 검토와 더불어 먹거리위 원회 등 심의 단계에서 '도민 참여 정책' 의 취지를 살리는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제안된 정책이 행정의 서류 더미 속에 묻히는 순간, 도민들의 숙의와 참 여는 헛수고가 된다.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참여'보다 '반 영'에 있다. 행정이 이를 정책에 어떻게 녹여내느냐가 전북형 거버넌스의 성패 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이번 숙의기구는 전북 먹거리 기 본조례 제17조에 근거해 출범한 공식

기구다. 즉,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제 도화된 참여 구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도민 제안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꾸준히 운영된다면, 이는 단순히 먹거리 분야에 그치지 않고 농정, 환경, 복지 등 다른 정책 영역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도민이 정책의 주체로 자리 잡 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먹거리 기 본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체 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급식 의 지역 농산물 비율은 낮고 취약계층 먹거리 복지 정책도 현장의 체감도가 부 족하다. 이제 도민이 직접 제안한 정책 이 이 간극을 메우는 현실적 대안이 되 어야 한다. 행정은 이를 단순한 '참여 성 과'로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도민의 손으로 만든 16건의 정책 제안 은 전북 먹거리 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민 중심 행정'의 시험 대다. 전북도는 숙의기구의 결과를 보고 서로 접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행 가 능한 과제부터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 책 반영 여부와 진행 상황을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신뢰의 선순환을 만들어 야 한다.

숙의기구의 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 을 일깨운다. 정책은 위에서 만들어 내 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올 라오는 도민의 삶의 경험과 요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전북도가 이번 제안을 통해 행정과 도민이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는 새로운 모델을 세운다면 그것이야 말로 전북형 참여민주주의의 가장 값진 성과가 될 것이다.

┌ ▲오늘의시

10월 / 오세영

무언가 잃어 간다는 것은 하나씩 성숙해 간다는 것이다.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때, 돌아보면 문득

나 홀로 남아 있다. 그리움에 목마르던 봄날 저녁 분분히 지던 꽃잎은 얼마나 슬펐던가.

시인 약력: 1942년 전남 영광 출생. 1965년 '현 대문학'에 새벽이, 1968년 '잠깨는 추상'으로 등 단했다.

욕정으로 타오르던 여름 한낮 화상 입은 잎새들은 또 얼마나 아팠던가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때, 이 지상에는

외로운 목숨 하나 걸려 있을 뿐이다. 낙과(落果)여,

네 마지막의 투신을 슬퍼하지 말라.

시집으로 '반란하는 빛', '가장 어두운 날 저녁 에', '무명 연시', '꽃들은 별을 우러르며 산다' 등

마지막의 이별이란 이미 이별이 아닌 것 빛과 향이 어울린 또 한번의 만남인 것을, 우리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별을 갖기 위해서 오늘도

잃어 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한국시인협회상, 녹원문학상, 소월시문학상, 정 지용 문학상, 만해대상 [1] 등을 수상했으며, 서 울대 교수를 역임했다.



적상산성 호국사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분류 - 기록유산, 금석각류, 비 -지정일 - 1979년 12월 27일 -시대 - 조선시대 -소재지- 무주군 적상면 산성로 1050 (괴목리)



2011년 10월01일 회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인쇄인 김은주 편집국장 장정철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임실지국 010-8642-6502 중앙지사 010-9678-4271 고창지국 010-2258-3734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송천지사- 010-5242-3694

·구독료: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경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하 80m '역발상 콜로세움' 익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지난 10월 25일 성황리에 개막한 익산 황등석 산 제1전망대 'EARTH UNDER PARK IKSAN' 이 개장 첫날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익산의 새로운 명소로 떠올랐다. 개막식에는 지역 주민 과 관광객, 예술가들이 대거 참석하여 근대 산 업유산의 문화예술공원 재탄생을 축하했다. 80여 년간 화강암을 채굴하며 형성된 지하 80m 깊이의 원형 채석장은 자연과 인간의 노 동이 빚어낸 거대한 예술 작품 그 자체다.

(편집자주)

압도적 비경, 80m 수직 절벽의 장관

제1전망대에 서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80m 직벽과 원형 채석장의 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을 지하로 뒤집어 놓은 듯한이 독특한 풍경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경관이다.

수십 년간 돌을 깎아내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절석면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황갈색, 은회색, 붉은빛으로 변화하며 살아있는 캔버스처럼 끊임없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미디어 전망 카페

전망대 내부에는 미디어 전망 카페가 조성되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곳에서는 80m 절벽의 장관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카페에서는 익산의 특산물인 고구마를 활용한 시 그니처 메뉴도 선보여 지역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

웅장한 자연 경관을 바라보며 익산의 맛을 즐기는 특별한 시간은 방문객들에게 오래 기억될 추억이 될 것이다.문화·상생·조망, 세 가지 가치로 미래를 설계하다

제1전망대는 '문화', '상생', '조망'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첫 번째 가치인 '문화'는 미디어 전망 카페와 정기적으로 열리는 청년 예술가 전시를 통해 구현된다.

개장 시기에 맞춰 원광대학교 학생들의 전시가 열리는 것은 지역 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문화 생태계조성의 출발점이다.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공연, 문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기획되어 황등석산이살아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두 번째 가치인 '상생'은 전망대에서 시작되는 황 등 둘레길을 통해 실현된다. 이 둘레길은 황등전통 시장과 황등면 중심가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관광 객들이 지역 상권을 찾도록 유도한다.

전망대만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황등면 곳 곳의 숨은 명소와 맛집을 발견하며 지역 경제에 실 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조다. 관광이 지역 주민의 삶 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순환 모델을 지향한다.

세 번째 가치인 '조망'은 황등석산만의 독특한 경 관을 최대한 활용한다.

80m 수직 절벽이 선사하는 압도적 스케일과 계절 별로 변화하는 절석면의 색감, 그리고 야간 라이팅 쇼까지, 시간과 계절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 아있는 풍경을 제공한다. 일출부터 일몰, 그리고 밤 까지 하루 종일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황등석산은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이다.

산업유산 재생의 새로운 모델

황등석산 프로젝트는 전국의 유사한 근대산업시설에 적용 가능한 성공적인 재생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지역 경제와 문화, 교육이 하나로 연결되는 통합적 접근은 대한민국 산업유산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산업의 거친 흔적을 예술과 미래로 승화시키는 황 등석산 문화예술공원. 제1전망대 'EARTH UNDER PARK IKSAN'의 개장과 함께, 익산은 세계가 주목 하는 문화예술도시로 힘차게 비상한다. 지하 80m에 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야기가 익산의 미래를 밝게 비출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기자



황등석산제1전망대,

문화 · 상생 · 조망으로 미래 열다











<사진=황등산업아트엔컬처 제공>

〈김찬혁 대표 인터뷰〉

"세계적 문화예술공원으로 익산을 국제 도시로"



개막식 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황등아트앤컬처 김찬혁 대표는 성공적인 개장에 대한 감회와 함께 황등석산의 미래 비전을 상세히 밝혔다.

Q. 제1전망대 개장을 맞이한 소회는?

"감회가 정말 남다릅니다. 80여 년간 산업의 현장이었던 이곳이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순간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오늘 개막식을 통해 많은 분들이 황등석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셨다는 점이 가장 뿌듯합니다."

Q. 황등석산이 가진 차별화된 가치는 무엇인가?

"황등석산은 80년 세월이 새긴 역사와 자연이 만들어낸 독특한 예술 작품입니다. 지하 80m 깊이의원형 채석장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경관입니다. 마치 콜로세움을 지하로 뒤집어 놓은 듯한 이 독특한 구조는 그 자체로 예술이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입니다."

Q. 앞으로의 발전 계획은?

"1단계 제1전망대 개장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제2전망대, 소규모 공연, 둘레길 공원, 예술가레지던시 등 다양한 문화 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독특한 자원을 활용해 포천 아트밸리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공원을 조성하여 익산을 국제적인 문화도시가 되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황등석산을 연간 50만 명 이상이 찾는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지역과의 상생 방안은?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문화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망대에서 시작되는 둘레길이 황등전통시장과 황등면 중심가로 연결되도록 설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광객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황등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주민 소득이 증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관광이지역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모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Q. 청년 예술가 지원 계획은?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지역 교육기관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오늘 개막식에서 선보인 학 생 전시가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 으로 청년 예술가들에게 창작과 전시의 기회를 제 공하여, 황등석산이 청년 인재 양성의 거점이 되도 록 하겠습니다. 예술가 레지던시가 완성되면 국내 외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Q. 방문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황등석산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한 번만 방문하지 마시고, 봄·여름·가을·겨울 각기 다른 모습을 경험해보시길 권합니다. 일출부터 일몰, 그리고 야간 라이팅 쇼까지 시간대별로 전혀 다른 감동을 선사합니다. 황등석산에서 익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